

제 출 문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 사회적 성과 정리 및 발전 방안 수립 연구

2023. 08.

유한킴벌리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본 보고서를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 사회적 성과 정리 및 발전 방안 수립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제 출 일 : 2023년 8월

(사)평화의숲



수 행 기 관 (사)평화의숲
연구 책임자 김재현(평화의숲 대표)
연구 원 김주연(건국대 박사과정)
 김동희(건국대 석사과정)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
제2장 KKG 종합적 사회성과	15
제1절 SDGs에 따른 KKG의 종합적 사회성과	16
제2절 소결	26
제3장 KKG 카테고리별 사회성과	28
제1절 IMP 및 집합적 임팩트 생태계 발전단계 분석결과	29
제2절 소결	73
제4장 KKG 향후 발전방안 수립	75
제1절 KKG 향후 발전 방향	76
제2절 KKG 향후 발전 전략	81
참고문헌	87
부록	89
[부록 1] KKG 집합적 임팩트 생태계 발전단계 도식화	90
[부록 2] 카테고리별 키워드 검색 결과(시대별 변화 추이)	110

<표 차례>

[표 1] KKG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분류 카테고리	4
[표 2] IMP의 5가지 차원	11
[표 3] IMP의 15가지 데이터 카테고리	11
[표 4] 집합적 임팩트를 위한 5가지 조건	13
[표 5] 집합적 임팩트 생태계 발전단계	14
[표 6]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파트너십 확장	19
[표 7] KKG가 달성한 SDGs 세부목표 및 지표	20
[표 8]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사업 내용 및 SDGs 성과 연계성(안)	21
[표 9] KKG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분류 카테고리	29
[표 10] KKG 집합적 임팩트 생태계 발전단계 구분 기준	30
[표 11] 카테고리별 선정 핵심키워드	31
[표 12] KKG 집합적 임팩트 생태계 발전단계 도식화 기준	31
[표 13] 프로그램 개요 - 산림자원조성사업 및 생명의 나무심기	32
[표 14] IMP 분석 개요 - 산림자원조성사업 및 생명의 나무심기	33
[표 15] IMP 데이터 카테고리별 분석 - 산림자원조성사업 및 생명의 나무심기	34
[표 16] 프로그램 개요-그린캠프	38
[표 17] IMP 분석 개요-그린캠프	39
[표 18] IMP 데이터 카테고리별 분석-그린캠프	40
[표 19] 프로그램 개요-학교숲	43
[표 20] IMP 분석 개요-학교숲	44
[표 21] IMP 데이터 카테고리별 분석-학교숲	45
[표 22] 프로그램 개요-도시숲	48
[표 23] IMP 분석 개요-도시숲	49
[표 24] IMP 데이터 카테고리별 분석-도시숲	50
[표 25] 프로그램 개요-공존숲	53
[표 26] IMP 분석 개요-공존숲	54

[표 27] IMP 데이터 카테고리별 분석-공존숲	55
[표 28] 프로그램 개요-공존숲	56
[표 29] IMP 분석 개요-시니어 산촌학교	57
[표 30] IMP 데이터 카테고리별 분석-시니어 산촌학교	57
[표 31] 프로그램 개요-몽골 산림복원&중국 사막화방지 나무심기	60
[표 32] IMP 분석 개요-몽골 산림복원&중국 사막화방지 나무심기	61
[표 33] IMP 데이터 카테고리별 분석-몽골 산림복원&중국 사막화방지 나무심기	62
[표 34] 프로그램 개요-북한 황폐지 복원	64
[표 35] IMP 분석 개요-북한 황폐지 복원	65
[표 36] IMP 데이터 카테고리별 분석-북한 황폐지 복원	65
[표 37] 프로그램 개요-생물다양성 및 탄소중립의 숲	69
[표 38] IMP 분석 개요-생물다양성 및 탄소중립의 숲	70
[표 39] IMP 데이터 카테고리별 분석-생물다양성 및 탄소중립의 숲	71
[표 40] 산림기본계획의 변천	76
[표 41] SFS에서 진행중인 프로그램 (2023년 8월 기준)	81
[표 42] '스쿨 오브 KKG' 추진체계 3요소	85
[표 43] 산림펀드 국내외 투자 현황	89

<그림 차례>

[그림 1] 주요 사회 이슈별 유한킴벌리 사회책임 대응	2
[그림 2] KKG 사회적 성과 정리 및 발전방안 수립 체계	6
[그림 3] SDGs 17개 목표	7
[그림 4] 임팩트 측정의 정의 및 범위	9
[그림 5] 글로벌 임팩트 투자사의 임팩트 측정/관리 방법 벤치마킹 기준	10
[그림 6] 탄소배출 문제로 살펴본 집합적 임팩트 생태계의 진화과정	14
[그림 7] SDGs의 5P와 17개 목표	24
[그림 8] SDGs 5P에 따른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발전 도식화(안)	25
[그림 9] KKG 캠페인의 단계 구분	26
[그림 10] SDGs의 환경·사회·경제적 측면에 대한 새로운 관점	27
[그림 11] 산림청 '숲가꾸기' 예산 변화 추이	35
[그림 12] 숲가꾸기 및 임도 개설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	35
[그림 13] KKG 사회적 임팩트 창출 모식도-산림자원조성사업 및 생명의 나무심기	36
[그림 14] '환경교육' 논문 관계도	41
[그림 15] KKG 사회적 임팩트 창출 모식도-그린캠프	41
[그림 16] (좌) '학교숲' 관련 학술논문 주제 현황(1999~2023), (우) '학교숲'이 학생들에게 미친 영향 관련 학술논문 현황(1999~2023)	46
[그림 17] '충북 청주시, 학교숲 코디네이터 활용한 생생한 숲 교육 제공'	47
[그림 18] (좌) '2009 학교숲 관찰일지 공모전' 포스터(2009), (우) '2009 학교숲 관찰일지 공모전' 수상작(2009)	47
[그림 19] 서울시 도시공원 관련 인식조사	50
[그림 20] 서울시 도시공원 민간참여 정책의 흐름	51
[그림 21] KKG 사회적 임팩트 창출 모식도-학교숲 및 도시숲	51
[그림 22] KKG 사회적 임팩트 창출 모식도-공존숲 및 시니어 산촌학교	58
[그림 23] AFoCo 활동 사진, '산림청 주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기후변화 해결에 앞장선다'	63
[그림 24] (좌) 연간 황사 발생빈도(2001~2019), (우) 관측 지점별 연평균 황사 일수	63

[그림 25] (좌) 'NGO 연대기구 '겨레의 숲' 창립	66
[그림 26] 시기별 북한 산림실태지도 (1999, 2008, 2018)	67
[그림 27] KKG 사회적 임팩트 창출 모식도 -몽골 산림복원 및 중국 사막화 방지 나무심기, 북한 황폐지 복원	67
[그림 28] KKG 사회적 임팩트 창출 모식도-생물다양성 및 탄소중립의 숲	72
[그림 29] KKG 사회적 임팩트 창출 모식도	73
[그림 30] 국내 산림경영 패러다임 변화 및 KKG 발전과정	78
[그림 31] 우리나라 산림기본계획의 변천	79
[그림 32] KKG 향후 발전 방향 및 비전(안)	80
[그림 33] SFS 프로그램으로 인한 환경적, 사회적 임팩트	83
[그림 34] '스쿨 오브 KKG(가칭)' 운영체계(안)	84
[그림 35] '스쿨 오브 KKG(가칭)' 추진체계	86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유한킴벌리는 1984년부터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Keep Korea Green, KKG)’ 캠페인을 추진함. 본 캠페인을 통해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뿐 아니라 숲을 매개로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해 옴
 - 국토녹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산림자원조성사업을 실시하였으며, IMF로 인한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숲가꾸기 사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섬
 - 이후 도시문제, 황사 등 사회·환경 이슈에 대응하고, 성숙한 산림자원을 건강하게 활용함으로써 이와 공존하기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최근에는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증진 필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유한킴벌리는 ‘탄소중립의 숲’, ‘생물다양성의 숲’을 조성하고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공감대 확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또한 KKG캠페인의 내용뿐만 아니라 활동 범위도 국제사회로 확장되고 있음

- 캠페인의 영향력을 확장 및 심화하기 위해서는 KKG가 지난 40년간 축적한 사회성과를 객관적 지표를 활용해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발전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 KKG를 통해 창출된 다양한 사회성과를 SDGs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KKG 발전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최근에는 기업의 사회성과가 궁극적으로 사회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대두됨(라준영, 2018; SGI, 2021). 장기간 운영되어 온 캠페인인 KKG 또한 그동안 창출해 온 사회성과를 영향력(임팩트) 차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KKG는 거버넌스 방식의 추진체계를 적용함으로써 정부·시민사회와 같은 다양한 섹터와의 협력을 도모해 옴. 이를 통해 단기적인 사업 실행에서 나아가 산림을 매개로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하는 생태계를 구축해 온 것으로 판단됨. 이에 KKG가 창출한 사회성과를 생태계 발전 과정 차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음



[그림 1] 주요 사회 이슈별 유한킴벌리 사회책임 대응
(출처: 유한킴벌리 홈페이지)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추진체계

- 본 연구는 KKG의 사회적 성과를 두 가지 관점에서 정리하고자 함
 - 첫 번째는 40년간 KKG가 축적해온 사회성과의 종합적 평가이며, 이에 대해서는 SDGs 지표를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함
 - 두 번째는 KKG의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아래와 같이 6가지의 카테고리별로 구분하여 사회적 임팩트 및 집합적 임팩트 생태계 개념을 적용해 분석하고자 함([표 1] 참고). 이때 사회적 임팩트 측정을 위해 IMP(Impact Management Project) 기준을 활용하고자 하며, 집합적 임팩트 생태계의 경우 발전단계에 따른 분석을 진행하고자 함
 - IMP 분석을 통해 KKG의 주요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가 창출한 사회적 임팩트의 내용을 정리하고자 함
 - KKG가 거버넌스형 사업추진 방식을 통해 창출한 사회성과를 집합적 임팩트 생태계 발전단계 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함

[표 1] KKG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분류 카테고리

카테고리 분류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진행 시기	주요 내용	진행 여부	직접적인 협력 기관
카테고리 1	거버넌스형 산림자원 조성 및 숲가꾸기	1984~현재	• 산림자원조성기금 마련 및 국유림 산림자원조성사업 참여	진행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1998~현재	• 산림자원조성기금을 숲가꾸기에 활용 •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정책 개발 및 '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 창립	진행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
		1998~2002	•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 실시	중단	
		2010~	• 유한킴벌리와 생명의숲의 협력을 통한 '생명의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 사업 추진	진행	
카테고리 2	산림문화 (교육·체험·문학·예술) 확산	1984~현재	• 신혼부부 나무심기	진행	
		1984~현재	• 청소년 그린캠프	진행	국립산림과학원, 전문가(개인)
		2000~2021	• 아름다운숲 전국대회 공모전 개최 • 아름다운숲 청년 모니터링단, 아름다운숲 기행 지원	중단	산림청, 생명의숲, 플레이포레스트, 청년(개인) 및 지역운영단체
		2001~현재	• '문학의집 서울' 설립 지원	진행	서울시, 문화예술인(개인)

카테고리 분류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직접적인 협력 기관	
		진행 시기	주요 내용	진행 여부		
카테고리 3	도시숲 조성 및 시민참여형 운영관리 확산	2001	• 천리포 수목원 후원 및 수목사전 제작 지원	중단	천리포 수목원	
		2001~2005	• 숲에 관한 정보사이트 '우리숲' 운영	중단	-	
		1995~2021	• '학교숲' 운동	중단	생명의숲, 서울시, 산림청	
		2002~2005	• '서울숲' 조성	완료	생명의숲, 서울시, SGT	
		2003~현재	• SGT 창립 및 활동 지원	진행		
		2006	• 유일한로 거리숲 조성	완료	SGT, 지자체	
카테고리 4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	2007~2010	• '우리동네숲' 프로젝트	중단	(사)생태산촌만들기모임	
		2016~2022	• 한강 인덱스가든 프로젝트	완료		
		2001~2022	• '생태산촌운동' 참여	중단		(사)생태산촌만들기모임
		2004~2022	• '내셔널트러스트' 운동 참여	중단		한국내셔널트러스트
		2005~2009	• 마을조사단	중단		생명의숲, 진안군, 제천시
		2015~현재	• '공존숲' 조성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진행		생명의숲, 중부지방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김천시, 경북대
카테고리 5	국외 숲만들기	2015~2019	• 시니어 산촌학교	진행	생명의숲,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1999~2020	• 북한 황폐지 복원	보류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생명의숲, 평화의숲, 겨례의숲, 세민재단, 북한국토환경보호성	
		1998~현재	• 평화의숲, (사)동북아산림포럼 창립 및 활동 지원	진행	(사)동북아산림포럼, 평화의숲	
		2001~2004	• 한중우림 조성	중단	(사)동북아산림포럼, 세민재단, 산림청	
		2003~현재	• 한몽우림 조성 및 숲가꾸기	진행	(사)동북아산림포럼, 세민재단, 산림청	
		2006~2014	• UNEP EPLC 창립 및 활동 지원	중단	UNEP	
카테고리 6	탄소중립 및 생물다양성 증진	-	-	-	-	

(출처: 연구진 작성)

* 진행 여부는 2023년 8월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 '중단', 조립 및 공원 조성 등 프로젝트가 완료된 경우 '완료'로 표기함

- 이상의 활동을 분석하여 향후 캠페인의 영향력 확장 및 심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그림 2] KKG 사회적 성과 정리 및 발전방안 수립 체계
(출처: 연구진 작성)

2. 연구 방법론

1) UN SDGs 지표

- KKG를 통해 창출된 다양한 사회성과를 지속 가능한 발전¹⁾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함
 - 이를 통해 KKG가 사회성과를 확장해온 영역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SDGs는 2000년에 설정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보완한 것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각국이 함께 달성하기로 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됨
 - MDGs가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빈곤 문제 해결에 집중하였다면, SDGs는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까지 포함한 전 세계가 빈곤 외에도 사회, 경제, 환경 등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립됨



[그림 3] SDGs 17개 목표
(출처: SDG Compass 홈페이지)

1) '지속가능성' 개념은 1970년대 초 급속한 인구 증가,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 심화 등으로 전 세계 차원에서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며 등장함. 이후, 1987년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개념이 국제사회에서 정립되면서 2015년 유엔총회에서 SDGs가 채택됨(김재현, 2016).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세대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뜻하며,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처음 정의됨(WCED, 1987)

- 이러한 가운데 SDGs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 사회에 거친 모든 영역의 이해관계자가 행동을 취할 것이 촉구됨. 전 세계의 정부가 SDGs 수립 및 이행에 합의하였으나, SDGs의 달성 여부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실천과 협력에 달려있음. 특히 SDGs는 MDGs와는 달리, 모든 기업에 지속 가능한 발전의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력과 혁신을 발휘할 것을 요구함(GRI, UN Global Compact, WBCSD)
- UN은 ‘UN 글로벌 콤팩트’를 제시하여 SDGs를 기반으로 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기업의 운영과 경영전략에 내재화하여 기업이 지속가능성과 기업 시민의식 향상에 동참하도록 권장함(UN 글로벌 콤팩트 홈페이지)

2) IMP 기준

- IMP 기준을 적용하여 KKG의 사회성과²⁾를 사회적 임팩트 중심으로 측정하고자 함
 - 사회적 임팩트는 다양한 조직과 이해관계자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중장기적인 결과임. 이에 기업 활동과의 인과관계가 복잡하여 해당 기업의 기여분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성과는 기업의 활동이 사회, 환경에 가져온 궁극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영향(impact)’과 이 ‘영향의 가치(value of impact)’를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함(라준영, 2018; SGI,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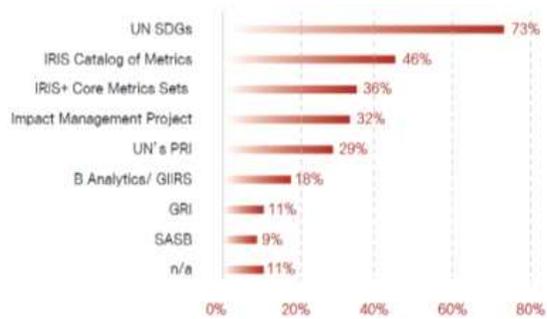


[그림 4] 임팩트 측정의 정의 및 범위
(출처: SGI, 2021)

- 사회적 임팩트 측정 기준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기준이 혼용되고 있었음. 이러한 가운데 UN, G7, OECD 등 범 세계적인 정부 간 기구에서부터 GIIN, Toniic 등 민간 투자자 연합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글로벌 조직들이 IMP를 결성하여 임팩트 측정 및 관리에 대한 표준화를 도모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임팩트를 측정 및 보고를 위한 표준인 IMP 기준을 활용하고자 함

2) '사회성과'란 조직활동의 결과물로서의 사회적 가치를 의미함. 논리모형(logic model)에 따라 크게 투입(input), 과정(process), 산출(output), 결과(outcome), 영향(impact)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즉, IMP는 임팩트를 측정하고 보고할 때 서술해야 할 요소들에 대하여 최초로 다양한 분야의 주요 글로벌 조직 간 합의점을 도출한 표준임. 이에 국제사회에서 사회성과 측정과 관련하여 최근 가장 주목받는 임팩트 측정관리 프레임워크 중 하나임(나석권, 2021; 소셜벤처스퀘어 홈페이지; 임팩톨로지 홈페이지)
- IMP가 제시하는 임팩트 측정·보고 표준은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 단체 등 다양한 조직을 대상으로 함. 또한 향후 ESG 관리, 비영리 프로젝트 측정, 정부 정책 사회적 가치 측정 보고에 활용 가능함



[그림 5] 글로벌 임팩트 투자사의 임팩트 측정/관리 방법 벤치마킹 기준
(출처: GIIN, 2020; 나석권, 2021, 재인용)

-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IMP는 임팩트를 서술하고 보고하기 위한 전세계 '공통의 언어'이자, '이해관계자'를 강조하고, 임팩트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한 관점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임팩트를 서술하고 보고하기 위한 전세계 '공통의 언어') 로직모델, SROI에서부터 ESG에 이르기까지 기존 임팩트 측정·평가 생태계 각 영역에 산재하던 개념·방법론을 모두 포괄함. 기업·투자자·실천가 등 다양한 배경의 생태계 구성원이 공통된 언어로 임팩트를 커뮤니케이션 하도록 기여함
- ('이해관계자'에 대한 강조) 조직의 활동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해당 임팩트가 이해관계자에

게 어떤 중요성을 가지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함. 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목표하는 Outcome을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데 초점을 둠

- (임팩트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한 관점) 임팩트를 창출하는 개별 조직의 임팩트 관리 목적뿐만 아니라, 해당 조직들에 투자하는 임팩트 투자자 관점에서의 임팩트 보고 및 관리를 위한 관점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음

○ IMP는 5가지 차원과 15가지 데이터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음

- (5가지 차원) IMP는 임팩트를 설명하고 관리하기 위해 5가지 차원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이는 15개 데이터 카테고리로 세분되어 서로 유기적이고 논리적으로 연결됨

[표 2] IMP의 5가지 차원

차원	IMP 정의(핵심 질문)	주요 내용
What	사회적 성과의 내용은 무엇인가? (What outcomes the enterprise is contributing to and how important the outcomes are to stakeholders?)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와 해결방안 인식 등
Who	사회적 성과의 이해관계자는 누구인가? (Who experiences the effect and how underserved are they in relation to the outcome?)	사회문제를 경험하는 이해관계자의 규모 및 거주 현황 등
How Much	사회적 성과 발생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How much of the effect occurs in the time period?)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의 규모, 해결 수준 등
Contribution	원래 수준보다 기업의 개입에 의해 얼마나 추가로 사회적 성과가 창출되는가? (How does the effect compare and contribute to what would likely occur anyway?)	해당 기업의 기여가 없는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성과 등
Risk	리스크는 얼마나 큰가? (Which risk factors are significant and how likely is it that the outcome is different from the expectation?)	사회적 가치 산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등에 대한 리스크 등

(출처: IRIS+; 소셜벤처스퀘어 홈페이지)

- (15가지 데이터 카테고리) IMP는 5가지 차원에 따라 15가지 데이터 카테고리가 존재함

[표 3] IMP의 15가지 데이터 카테고리

차원	데이터 카테고리	
What	사회적 성과 (outcome level in period)	• 해당 기업이 관여했을 때 이해관계자가 경험하는 사회적 성과 수준
	요구되는 수준 (outcome threshold)	• 이해관계자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성과 수준
	해결방안의 중요성 (importance of outcome to stakeholder)	•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성과의 우선순위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및 견해
	SDG목표/글로벌목표 (SDGs and/or global goal)	• SDGs 또는 사회적 성과와 관련한 글로벌 목표
Who	대상 (stakeholder)	• 사회적 성과를 경험하는 이해관계자 유형
	지역 (geographical boundary)	• 이해관계자가 사회적·환경적 성과를 경험하는 지리적 위치
	기존상태 (outcome level at baseline)	• 개입 이전 또는 해당 기업의 활동에 의한 영향이 없었을 때의 이해관계자가 경험하는 사회적 성과 수준
	대상의 특성 (stakeholder characteristics)	• 이해관계자의 사회 인구학적, 행동적 특성 또는 생태계 특성
How Much	규모 (scale)	• 사회적 성과를 경험하는 사람의 수
	심도 (depth)	• 이해관계자가 경험한 변화의 정도
	지속기간 (duration)	• 이해관계자가 사회적 성과를 경험하는 기간
Contribution	심도 관련 공헌도 (depth counterfactual)	• 해당 기업의 개입이 없었을 경우를 가정한 추정 변화 정도
	지속기간 관련 공헌도 (duration counterfactual)	• 해당 기업의 개입이 없었을 경우를 가정한 추정 지속기간
Risk	리스크 유형 (risk type)	• 사회적 성과 창출 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 유형
	리스크 수준 (risk level)	• 해당 리스크 발생 가능성과 발생 시 인간과 지구에 끼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고려한 리스크 수준

(출처: IRIS+, 소셜벤처스퀘어 홈페이지)

3) 집합적 임팩트 생태계

- KKG는 거버넌스형 사업 추진방식을 도입해 산림을 매개로 여러 섹터 간 협력을 도모하여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생태계’ 구축에 기여함. 이에 KKG의 사회성과를 ‘집합적 임팩트 생태계’ 개념을 활용해 생태계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함
 - 집합적 임팩트 생태계의 발전단계를 분석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협력 구조 형성에 본 캠페인이 영향을 미친 과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집합적 임팩트’는 다양한 사회문제가 유기적으로 얽혀 있으며, 개별 단위의 조직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에 착안하여 등장한 개념임. 단일 조직의 개별적인 임팩트 활동보다는 여러 섹터의 조직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훨씬 큰 임팩트를 창출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음
 - 2008년 글로벌 위기가 시작되면서 관심을 받기 시작하다, 2011년 Kania&Kramer의 연구를 계기로 그 정도가 증폭됨. 이후 2015년 UN의 SDGs 발표를 통해 다양한 영역 간 협력이 강조되며 관심도가 더욱 높아짐. 최근에는 코로나 19로 글로벌 위기가 극심해지며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음
 - Kania&Kramer(2011)는 집합적 임팩트의 성공을 위한 5가지 조건을 제시함

[표 4] 집합적 임팩트를 위한 5가지 조건

구분	내용
공동의 아젠다	참여하는 조직 모두 사회문제와 그 해결책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가지며 사회변화를 위해 합의된 비전, 공동의 목표를 가짐
성과 측정 시스템의 공유	데이터 수집과 성과 측정의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 참가자들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 상호 신뢰와 책임성을 제고함
상호 활동의 강화	서로 다른 전문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들 간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실행계획을 촉진하면서 각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차별화함
지속적인 소통	지속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 간의 신뢰구축, 목표 확인, 동기부여의 문화를 형성함
중추지원 조직	모든 참가 주체들을 이끌고 문제 해결을 독려할 수 있는 중추 기능의 전문기관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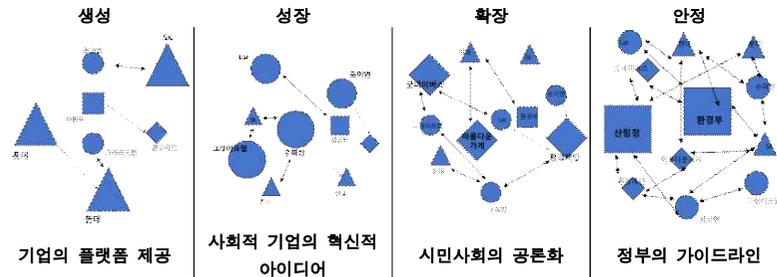
(출처: Kania&Kramer, 2011)

- 이때 **집합적 임팩트**는 단순히 다양한 영역의 이해관계자 간 협력이라는 개념에서 나아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장용석 외, 2022)
 - 집합적 임팩트 생태계 개념은 개별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거친 거시적인 차원에서 집합적 임팩트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접근임
 - 집합적 임팩트 생태계는 다음과 같은 발전단계를 지니고 있음(장용석 외, 2022)

[표 5] 집합적 임팩트 생태계 발전단계

구분	내용
생성단계	문제해결 플랫폼을 제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단계
성장단계	사회문제에 대한 단기적 시각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 가치의 규모를 확보하는 단계
확장단계	고도의 집중된 역량을 주변으로 확산시켜 공진화하는 단계
안정단계	연결의 힘을 극대화하여 가치를 견고하게 지키는 단계

(출처: 장용석 외, 2022)



- 주 1) 네모: 정부 / 세모: 기업 / 동그라미: 사회적 기업 / 마름모: 시민사회
- 주 2) 굵은 글씨 및 도형의 크기: 각 단계를 주도하는 주체 및 사회문제 해결의 집중도
- 주 3) 화살표: 협력의 영향력

[그림 6] 탄소배출 문제로 살펴본 집합적 임팩트 생태계의 진화과정
(장용석 외, 2022)

제2장

KKG 종합적 사회성과

제1절 SDGs에 따른 KKG의 종합적 사회성과

제2절 소결

제2장 KKG 종합적 사회성과

제1절 SDGs에 따른 KKG의 종합적 사회성과

- KKG가 지난 40년간 달성해온 SDGs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하고자 함. 이를 통해 KKG가 성과를 확장해온 분야와 더불어 KKG의 방향성 변천을 함께 살펴보고자 함

1. KKG의 SDGs 달성 현황



목표 15. 육상생태계

- KKG는 국토녹화를 위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15번 ‘육상생태계 보전’ 달성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옴. 15번 목표는 산림환경 증진을 중점에 두는 KKG가 기반을 두고 있는 목표로 볼 수 있음
 - 1984년 ‘산림자원조성기금’을 마련한 이래로 국유림 조림, 숲가꾸기, 임도개설 등을 통해 15번 목표의 지표 중 ‘(15.1.1) 총 육지면적 중 산림면적의 비율’과 ‘(15.2.1)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에서의 진전’을 보임
 - 이후 당대의 사회적 이슈와 결합해 ‘학교숲’, ‘도시숲’, ‘동북아 생태계 증진’, ‘공존숲’ 등을 주제로 지속적인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15번 목표 달성을 기반으로 SDGs 중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목표들을 달성해온 것으로 나타남



목표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모든 사람에게 평생 교육 기회 증진

- 1988년부터 현재까지 산림환경체험 교육 프로그램 ‘그린캠프’를

운영함으로써 4번 목표인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달성함

- 목표 4번 내 세부목표 4.7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공감을 교육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³⁾
- 무엇보다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장기간 지속하였으며, 이들의 환경의식을 증진하여 글로벌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제고 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해당 지표 달성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목표 8. 모두를 위해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 1998년 IMF로 인한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근로 사업과 숲가꾸기를 연계하여 목표 8번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달성을 이끌어냄. 이후에도 다양한 캠페인을 꾸준히 운영함으로써 조림 및 숲가꾸기 관련 일자리를 창출함
 - 특히 목표 8번 내 ‘(8.5.2) 실업률’ 지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임. 무엇보다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이 정부 정책으로 정착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SDGs 달성에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⁴⁾



목표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 제공,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 1999년부터 추진한 북한 황폐지 복구 사업을 통해 국가 차원의 16번 ‘평화, 정의, 포용’ 달성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북한 황폐지 복구 사업 추진을 통해 남북 갈등 완화와 더불어 산사태 등

3) 숲과 환경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정서적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창출함. 참가자의 창의적 인식 변화가 참가 전후 평균 3.687에서 3.77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함(국립산림과학원, 2014; 장진 외, 2017)

4) 1998년 IMF 경제위기 때 실업자를 고용해 추진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지난 5년간 연고용인원 1500만 명, 숲가꾸기 43만ha의 성과를 창출함(산림청·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 토론회, 2002.12.14., 한국농어민신문,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010>)

의 재해방지에 기여하여 북한 지역주민들의 생활 개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됨



목표 11. 지속가능도시

○ 200년대 이후 도시 환경 문제에 관한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학교숲’ 및 ‘도시숲’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11번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관련 사회성과를 창출함

- 산림청, 지자체와의 협력구조 속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기관들의 ‘학교숲’, ‘도시숲’에 대한 공감대를 증진하고, 이러한 인식이 예산 편성으로까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⁵⁾. 이는 지표 ‘(11.4.1) 자연유산의 보전, 보호, 및 관리에 배정된 국가(또는 지방) 예산의 비율’와 연관됨
- 도시녹지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 감소 등 대기질 개선에 기여⁶⁾했다는 점에서 지표 ‘(11.6.2) 도시 미세먼지의 연평균 수준’ 관련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공공성이 높은 도시녹지 조성은 지표 ‘(11.7.1) 도시에서 공공목적의 용도를 위해 개발된 시가지 지역이 차지하는 평균비율’과도 연관성이 높음



목표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대응

○ 최근에는 탄소중립 및 생물다양성 증진까지 영역을 확장하며 13번 ‘기후변화 대응’을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5) 2020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었으며, 산림청은 도시숲 조성 예산을 2019년 약 2,400억 원에서, 2020년 3,300억원으로 확대함(산림청, 2020). 서울시의 경우 민선 1기, 3기, 4기에 공원조성이 주요 시책사업으로 제시되었으며 해당 시기에 도시녹지 관련 예산이 증가함(고하정, 2020)

6) ‘학교숲’ 500그루 나무의 미세먼지 흡수량은 공기청정기를 36만 시간 가동시킬 경우 기대되는 정화량과 동일하며, 이를 통해 연간 570만원 상당의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효과(숲의 생태적 가치, 트리플래닛 제공)가 있어 에너지 절약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학교숲”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다, 2019.04.10, 원자력신문, <https://www.kn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382>)

- 특히 국가 차원에서 세부목표 13.1 ‘모든 국가에서 기후 관련 위험과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및 적응력 강화’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지속적으로 시민참여 프로그램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지표 ‘(13.3.2) 적응, 완화, 그리고 기술 이전 및 개발 이행을 위한 기관, 체계 그리고 개인적인 역량 강화를 홍보한 국가의 수’를 달성하는 것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됨



목표 17. 파트너십

- 유한킴벌리는 KKG를 운영함에 있어 주도적인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추진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파트너십 체결을 통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취함
- 이는 UN이 강조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파트너십을 통한 목표 달성에 부합함

[표 6]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파트너십 확장

구분	1984년	1998년	1999년	2000년대	2010년대~현재
국내	산림청				
	-	-	-		국립산림과학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내	생명의숲				
	-	-	-		평화의숲 서울그린트러스트 생태산촌 내셔널트러스트 동북아산림포럼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 몽골
국제	정부 (기관)	-	-	-	개발도상국
	국제기구	-	-	-	에코피스
기타	시민사회	-	-	-	천리포수목원
					산림조합, 전문가

[표 7] KGG가 달성한 SDGs 세부목표 및 지표

목표	세부목표		지표	
15 Life on Land	15.1	2020년까지, 국제협약 의무에 따라, 특히 산림, 습지, 산, 건조지 등의 육지 및 내륙 담수 생태계와 그 서식지에 대한 보전, 복원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보장	15.1.1	총 육지면적 중 산림면적의 비율
	15.2	2020년까지 모든 형태의 산림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를 촉진시키고, 산림벌채를 중단하고, 황폐화된 산림을 복원하고 전 세계적으로 조림과 재식림을 대폭 확대	15.2.1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에서의 진전
4 Quality Education	4.7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 생활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습득을 보장	4.7.1	(i) 세계시민의식 교육 (ii) 양성평등과 인권을 포함하는 지속가능발전 을 위한 교육이 (a) 국가 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용 교육 그리고 (d) 학생평가 등 모든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범위
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8.3	생산활동,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창업, 창의성과 혁신을 지원하는 개발지원적 정책을 진흥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통해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공식화와 성장을 독려	8.3.1	비농업부문으로의 비공식 취업 비율 (상표)
	8.5	2030년까지 청년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남성과 여성을 위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동일한 가치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원칙 달성	8.5.2	실업률 (상표, 연령별, 장애인 별)
16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	-	-	-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11.4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노력 강화	11.4.1	세계문화유산을 포함하는 국가 문화·자연유산의 보전, 보호, 및 관리에 배정된 국가(또는 지방) 예산의 비율
	11.6	2030년까지 대기와 질과 도시 및 기타 대기질 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하면서 도시가 가지는 부정적인 인당 환경영향을 감소	11.6.2	도시 미세먼지(PM2.5초미세먼지와 PM10미세먼지)의 연평균수준 (인구수에 따른 가중)
	11.7	2030년까지 포괄적이고 안전하며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한 녹색 및 공공장소 제공 (특히,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11.7.1	도시에서 공공목적의 용도를 위해 개발된 시가지 지역이 차지하는 평균비율 (연령, 성 및 장애인별)
13 Climate Action	13.1	모든 국가에서 기후 관련 위험과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과 적응력 강화	13.1.1	국가적인 그리고 지역적인 재난 위험 감축전략이 있는 국가의 수
	13.3	기후 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에 대한 교육, 인식 고취, 인구 및 제도 역량 개선	13.3.2	적응, 완화, 그리고 기술 이전 및 개발 이행을 위한 기관, 체계, 그리고 개인적인 역량 강화를 홍보한 국가의 수
17 Partnerships for the Goals	-	-	-	-

(출처: 연구진 작성)

[표 8]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사업 내용 및 SDGs 성과 연계성(안)

시기	주요 내용	세부 내용 및 기대효과	이해관계자	SDGs 성과*		비고
				목표	지표	
1984~현재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자원조성기금 조성 소비자 나무심기, 연구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청, 산림조합 	11	11.4.1	
				15	15.1.1 15.2.1	
1985~2004	국유림 조림, 숲가꾸기, 임도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한 숲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청, 산림조합 	11	11.4.1	
				15	15.1.1 15.2.1	
1985~현재	신혼부부 나무심기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한킴벌리가 추구하는 가치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가능 		15	15.1.1 15.2.1	
1988~현재	환경체험 교육 '그린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환경체험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1988~1994) 2단계: 박사연구원, 대학교수(1995~2002) 3단계: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청, 대학생(2003~) 	4	4.7.1	
				13	13.3.2	
1995~2019	학교숲 운동(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세대에게 자연친화적인 교육 공간을 만들어줌으로써 생명존중사상 고취, 과학적 사고능력 배양, 도시림 확보 및 지역 유대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함 생태환경 교육 프로그램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명의숲(1998) 산림청(2001) 	4	4.7.1	
				11	11.4.1 11.6.2 11.7.1	
				13	13.3.2	
				15	15.2.1	
				17	-	
1998	생명의숲국민운동 주도적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명의숲 창립 당시부터 함께 해 국가 경제 위기에 자칫 잊기 쉬운 '자원으로서의 미래 숲 가꾸기 사업의 중요성'을 국가적으로 환기함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대규모의 고용 창출 효과를 내는데 협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명의숲 	8	8.3.1 8.5.2	시민사회 파트너십 체결
				11	11.4.1 15.1.1 15.2.1	
				15	15.1.1 15.2.1	
				17	-	
1999	동북아산림포럼과 사막화 방지를 위한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북아 산림생태학자들이 주체가 되는 '동북아 산림포럼'과 함께 동북아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해 현지 조사, 나무 심기, 연구 및 학술행사 지원, 출판 등의 협력 활동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북아산림포럼 	15	15.1.1 15.2.1 15.a.1 15.b.1	
				17	-	
				15	15.1.1 15.2.1	
				16	-	
1999~2020	북한 숲 복구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반도 환경보전에 기여 산림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장비 지원, 전문가 회의 개최, 세미나 개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화의숲 	15	15.1.1 15.2.1	
				16	-	
				17	-	

시기	주요 내용	세부 내용 및 기대효과	이해관계자	SDGs 성과*		비고
				목표	지표	
2000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공동 개최 시작	• 전국 아름다운 숲 발굴과 보전	• 산림청 • 생명의숲	15	15.2.1	
				17	-	
2001	천리포 수목원 후원	• 천리포 수목원 후원 및 수목사전 제작 지원	• 천리포 수목원	15	15.5.1	
				17	15.a.1	
2001~2005	숲에 관한 정보사이트 '우리숲' 운영	• 숲 정보를 제공하면서 숲 보호 활동의 참여를 독려			-	
2003	도시숲 확대를 위한 서울그린트러스트 운동 참여	• 도시 녹지 확대를 위한 연구조사, 도시숲 사업을 위한 자금 조성 활동	• 서울시 • 서울그린트러스트	11	11.4.1	
	서울숲 시민가족 나무심기 참여	• 유한킴벌리가 추구하는 가치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가능		15	15.1.1	
				17	15.2.1	
2003년~2014년	몽골 토진나르스 조림 사업	• 대형산불로 훼손된 지역 복원 • 1단계: 몽골 사막화 방지숲 조성사업(2003~2014) • 2단계: 몽골숲 가꾸기 1차 협약(2014~2017) • 3단계: 몽골숲 가꾸기 2차 협약 조림모델 제시, 전망대 설치(2018~2020)	• 몽골 정부 • 동북아산림포럼	13	13.3.2	국제산림협력사업 본격화
				15	15.1.1	
					15.2.1	
					15.a.1	
17	-					
2005	산림문학홀 개관		• 문학의 집 서울	17	-	
2006	유일한로 거리숲	• 경인로에 거리숲 조성		11	11.4.1	
				15	15.1.1	
					15.2.1	
17	-					
2006	내셔널트러스트 운동 참여	• 내셔널트러스트가 진행하는 보전 가치가 있는 자연 및 문화 유산 지역을 발굴하고 보호하며 선진국의 사례 조사 활동을 돕고 있음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11	11.4.1	
				15	15.1.1	
					15.2.1	
17	-					
2006~2014	UNEP EPLC 창립	• 아태지역 생명과 평화공동체 구축을 위한 UNEP EPLC 창립 및 활동 지원	• UNEP EPLC • 강원대학교	4	4.7.1	
				17	-	
2008	히말라야-환경보호 바그마티유역 정화	• 국제기구연대 활동 • 하천환경복원 프로젝트 진행 협약	• 국제기구	11	11.4.1	
				17	-	

시기	주요 내용	세부 내용 및 기대효과	이해관계자	SDGs 성과*		비고
				목표	지표	
2015~현재	공존숲 운동	• 국공유림숲 활용 • 숲을 통한 일자리와 함께 시니어의 자원봉사, 그린집 등 다양한 형태의 산림서비스 창출 기대 • 탄소상쇄 효과 기대 • 숲 가꾸기 면적은 산림탄소상쇄사업 계획에 따라 산출됨 • 2015년: 김천공존숲 조성 • 2017년: 대전공존숲 조성 • 2021년: 용인석포숲 조성 예정(시민참여형 탄소중립의숲 1호 조성 협약)을 체결함	• 김천시 • 중부지방산림청 • 북부지방산림청	11	11.4.1	새로운 비전 수립 '숲과 사람의 공존을 통한 더 나은 생활 구현'
				15	11.6.2	
					15.1.1	
17	15.2.1					
2016~2020	시니어 산촌학교	• 고령화 시대에 숲에서 새로운 삶의 대안 모색	• 국립산림과학원 • 생명의숲	4	4.7.1	
2021년	'탄소중립-ESG경영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국내외 산림사업의 공동 검토 및 민관협력 • 기업의 탄소중립 및 친환경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산림효과 지표발굴 및 연계 방안 검토 등을 상호협력	• 산림청 • 개발도상국	13	13.1	
	17	-				
2021년	사회·환경적 가치 연구사업	• 40년간 캠페인을 추진하며 조성한 숲의 현황과 성과를 데이터화 함 • 이를 기반으로 사회, 환경에 보다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구상나무 및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 보호 및 보전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 한국 고유종이자 멸종위기종 고산 침엽수 구상나무 보존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15	15.4.1	
17	-					

* 환경부에서 공시한 SDGs 세부목표 및 지표를 참고함
(출처: 연구진 작성)

2. SDGs로 본 KKG의 방향성 변천

- KKG는 국토녹화에 기여하며 **국내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시작으로, **산림과 당대의 사회적 이슈를 결합하며 점차 영역을 확장**함. 이러한 과정에서 **SDGs의 5P 전반에 걸쳐 사회적과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옴
- 5P는 SDGs를 담고 있는 UN 공식 문서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서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5가지 요소이며, 이에 따라 17개 목표가 분류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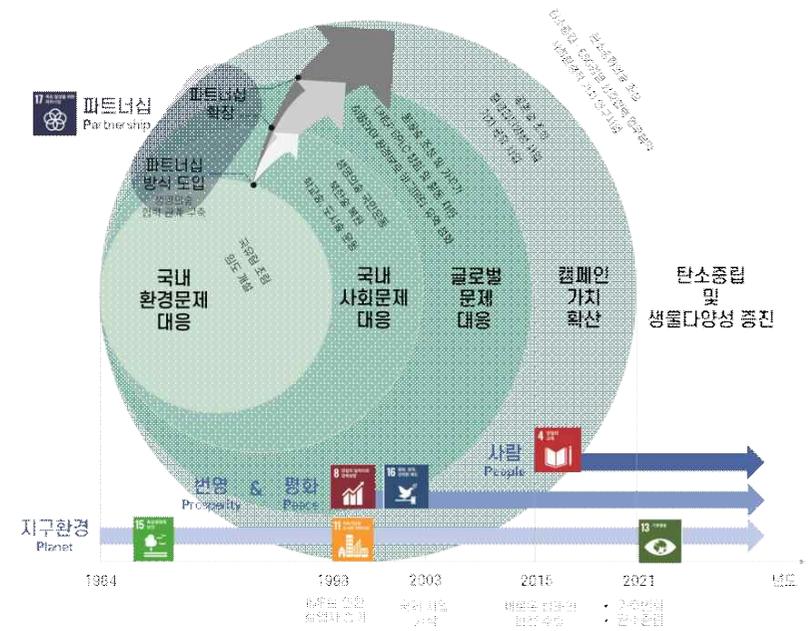


[그림 7] SDGs의 5P와 17개 목표

- KKG는 SDGs의 ‘지구환경(Planet)’ 영역 목표 달성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가운데, **국내의 사회·환경 문제까지 캠페인의 영향력을 확장**하며 ‘번영(Prosperity)’와 ‘평화(Peace)’에 포함되는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음
- 2015년 ‘숲과 사람의 공존을 통한 더 나은 생활 구현’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며 ‘사람(People)’의 영역까지 적극적으로 다루게 된 것으로 보임
- 이때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을 확장 및 강화**하는 방식으로 **캠페인의 확장성과**

지속성을 증진한 것으로 사료됨

- 산림자원 조성기금을 형성하여 산림청, 산림조합과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통한 산림 조성 및 관리 활성화 모델을 제시함
- 또한 ‘생명의숲’, ‘평화의숲’, ‘동북아산림포럼’ 등 시민단체 출범을 지원하며 산림분야의 새로운 주체 형성과 시민참여 증진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도모함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거버넌스를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사업의 사회적 영향력 확장과 지속적인 운영을 가능케 함



[그림 8] SDGs 5P에 따른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발전 도식화 (출처: 연구진 작성)

제2절 소결

○ 시대적 흐름에 따라 KKG의 SDGs 달성 내용을 살펴본 결과, KKG는 아래의 3가지 차원의 확장을 통해 사회성파를 확산해 온 것으로 판단됨

- 첫 번째는 ‘공간적 확장’으로 볼 수 있음. 1984년 캠페인을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국내를 대상지로 삼았으나, 2000년대에 접어들며 북한 나아가서는 중국과 몽골 등 동북아 생태계 증진에 힘씀. 즉, 국내에서 국제적으로 대상지를 확장해온 것을 알 수 있음
- 두 번째는 ‘캠페인 주제 및 목표의 확장’으로 볼 수 있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더욱 다양한 SDGs를 달성하였음. 이를 통해 환경문제뿐 아니라 산림을 매개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캠페인의 주제를 확장해왔음을 알 수 있음. 주제가 확장됨과 동시에 캠페인의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캠페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범위 또한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음



[그림 9] KKG 캠페인의 단계 구분
(출처: 신강균, 2008)

- 세 번째는 ‘파트너십의 확장’으로 볼 수 있음. 이는 캠페인 추진 방식이 파트너십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음을 의미함. 산림청, 산림조합과의 협력을 시작으로 국민들의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시민사회 영역까지 파트너십을 확장함. 나아가 국제사회까지 파트너십을 확장해옴. 이 과정에서 거버넌스 방식의 캠페인 추진을 정착하는데 기여함
- 또한 KKG의 SDGs 달성 과정을 살펴보면,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토대로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모든 사업 운영 시 파트너십 구축을 중요시하였다는 특징이 있음. KKG의 이

러한 캠페인 추진방식은 최근 대두되는 SDGs의 환경·사회·경제적 측면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같은 방향성을 지니고 있음

- 초기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환경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각각 결합되어 작용하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기반으로 두고 사회적·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려는 방향으로 그 관점이 변화하고 있음(Stockholm Resilience Centre, 2016; 유미연, 2021)



[그림 10] SDGs의 환경·사회·경제적 측면에 대한 새로운 관점
(출처: Stockholm Resilience Centre, 2016)

- KKG는 오랜 시간 동안 파트너십을 견고히 해 왔으며,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구조에 대한 경험을 축적함.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그동안의 성과를 유지하며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비전 및 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제3장

KKG 카테고리별 사회성과

제1절 IMP 및 집합적 임팩트 생태계 발전단계 분석결과

제2절 소결

제3장 KKG 카테고리별 사회성과

제1절 IMP 및 집합적 임팩트 생태계 발전단계 분석결과

1. IMP 및 집합적 임팩트 생태계 분석 기준

- IMP와 집합적 임팩트 생태계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하기에 앞서, KKG의 사업 내용을 고려하여 분석 기준을 정립하고자 함

1) IMP 분석 기준

- IMP 분석은 KKG 사업 중 카테고리별 1~3개의 주요 사업을 선정하여 진행함. 이는 KKG가 주도적, 장기적으로 진행한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음. 카테고리별 선정 사업은 아래와 같음

[표 9] KKG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분류 카테고리

카테고리 분류		KKG 사업명
카테고리 1	거버넌스형 산림자원조성 및 숲가꾸기	• 산림자원조성사업 및 생명의 나무심기
카테고리 2	산림문화(교육·체험·문학·예술) 확산	• 그린캠프
카테고리 3	도시숲 조성 및 시민참여형 운영관리 확산	• 학교숲 • 도시숲 (서울숲/우리동네숲/인덱스가든)
카테고리 4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	• 공존숲 • 시·내·산촌학교
카테고리 5	국외 숲만들기	• 몽골 산림복원 및 중국 시막화방지 나무심기 • 북한 황폐지 복원
카테고리 6	탄소중립 및 생물다양성 증진	• 공존숲 & 생물다양성숲

- 앞서 SGI(2021)에 따르면 임팩트 측정의 범위는 Input, Output, Outcome, Impact, Value of Impacts의 5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개요’ 및 ‘IMP 분석 개요’를 통해 Input, Output(양적성과), Outcome을 측정 및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종합하여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한 ‘영향(impact)’을 분석함

- IMP 분석의 경우 15가지 데이터 카테고리 중 해당 기업의 개입이 없었을 경우를 가정한 추정 변화 정도, 지속 기간에 해당하는 데이터인 ‘Contribution’과 사회적 성과 창출 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 유형과 인간과 지구에 끼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측정하는 리스크 수준 데이터인 ‘Risk’는 명확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2) 집합적 임팩트 생태계 발전단계 분석 기준

- 앞서 장용석 외(2022)에 따르면 집합적 임팩트 생태계의 발전단계는 생성·성장·확장·안정의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분류 기준에 KKG의 추진 과정을 반영하여 집합적 임팩트 생태계 발전단계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자 함([표 2] 참고)
- 카테고리별 KKG 집합적 임팩트 생태계 발전단계는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분기점이 된 이벤트를 기준으로 그 시기를 구분함. 특히 시기 구분에 있어 KKG의 핵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히스토리 인터뷰를 참고함

[표 10] KKG 집합적 임팩트 생태계 발전단계 구분 기준

구분	내용
생성단계	유한킴벌리의 아젠다 제시 및 프로그램 플랫폼 형성이 이루어지는 단계임
성장단계	다양한 이해관계자(기업, 정부, 시민사회 등)가 협력할 수 있는 구조로 실행 조직이 구축되는 단계이며, 실행 조직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됨
확장단계	정부, 시민사회 등 각 영역에서 더욱 다양한 조직들의 참여가 이루어짐. 시민참여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지며, 전 국민적 참여를 도모하는 기반을 형성하는 단계임
안정단계	사회 보편적 아젠다로 등극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국민 참여가 활성화됨,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접근(정책 사업 운영, 관련 법 제정 등)이 이루어진 단계임

(출처: 연구진 작성)

- 집합적 임팩트 생태계 발전단계 도식화의 경우 카테고리별로 핵심적인 키워드를 선정하여 언론검색을 진행함. 이를 통해 기관별 도형 크기와 네트워크선 굵기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함
- 언론검색을 위한 각 카테고리의 핵심키워드는 아래 표와 같음

[표 11] 카테고리별 선정 핵심키워드

카테고리	카테고리 분류	핵심키워드
카테고리 1	거버넌스형 산림자원조성 및 숲가꾸기	• 숲가꾸기 • 산림일자리
카테고리 2	산림문화(교육·체험·문학·예술) 확산	• 산림문화 • 숲체험
카테고리 3	도시숲 조성 및 시민참여형 운영관리 확산	• 학교숲 • 도시숲
카테고리 4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
카테고리 5	국외 숲만들기	• 남북산림협력 • 몽골 사막화 방지
카테고리 6	탄소중립 및 생물다양성 증진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카테고리 집합적 임팩트 생태계 발전단계를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함

- (기관별 도형 크기) 언론에 노출된 빈도⁷⁾와 관련된 주제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기관의 도형 크기를 결정함
- (네트워크선 굵기) 도형을 연결하여 네트워크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선의 경우 언론에 노출된 직접적 협력 빈도와 관련된 주제의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굵기를 달리함

[표 12] KKG 집합적 임팩트 생태계 발전단계 도식화 기준

도형 모양	도형 크기(기관 영향력)	선 굵기(네트워크 영향력)
정부 	대 언론 노출 횟수 20회 이상	굵기 1 
기업 	중 언론 노출 횟수 10회 이상 20회 미만	굵기 2 
시민사회 	소 언론 노출 횟수 2회 이상 10회 미만	굵기 3 
국제기구 타국정부 	* 언론 노출 빈도 ⁸⁾ 와 함께 관련된 분야의 선행연구, KKG 백서 제작을 위한 이해관계자 인터뷰 및 연구진의 판단을 반영함	

7) 검색 포털: 네이버 뉴스/ 검색 기간: 1990.01.01.~2022.12.31/ 기사 추출 기준: 해당 키워드를 검색하였을 때 제목 또는 기사 본문에 키워드가 포함되어 포털이 제공한 모든 기사 중 키워드 관련 국내 생태계 발전에 유관한 기사/ 기관 추출 기준: 기사 내용 중 키워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주도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작성된 기관

8) 포털에 검색된 총 뉴스 개수 중, 해당 카테고리의 집합적 임팩트 생태계 확장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을 분류하여 해당 사건에 연관된 기관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빈도를 분석함

2. [카테고리 1] 산림자원조성사업 및 숲가꾸기

1) IMP 분석 결과

(1) 산림자원조성사업 및 생명의 나무심기

○ 프로그램 개요

- 1984년 유한킴벌리는 ‘산림자원조성기금’을 조성하여 국토녹화사업 및 산림 관련 국민참여운동, 연구사업을 지원함
- 초기 나무심기 사업에 주로 이용하였으나, 1990년대부터는 숲가꾸기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함. 그 결과 1,538ha의 숲을 조성하였으며 5,977ha의 숲 가꾸기를 진행함
- 이 과정에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실업문제 해결에 기여하였으며 숲가꾸기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함

[표 13] 프로그램 개요 - 산림자원조성사업 및 생명의 나무심기

구분	내용	
기간	1985 ~ 2013	
목적	국토 녹화를 위한 조림과 건강한 산림 유지를 위한 숲가꾸기	
대상	국민, 실업자	
주요내용	국토녹화,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산림사업 주제(기업, 시민사회, 국민) 확장	
협력기관	산림청, 산림조합 중앙회, 생명의숲	
양적 성과	총 사업면적(m ²)	88,366,300
	총 식재본수	5,360,806
	숲가꾸기본수	20,092,767
	총사업본수	25,453,573
	숲길(m)	64,800
	참여자수(명)	-
	일자리-식재(명)	18,763
	일자리-숲가꾸기(명)	46,883
일자리 합계(명)	65,646	

○ IMP 분석 개요

- 1970년대~1980년대 우리나라의 산림은 황폐화되어 있었음. 산림 황폐화로 인하여 산사태 및 경관 훼손 문제가 발생함. 또한, 1997년 IMF로 인한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
- 이를 기업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조성기금’을 마련하여

기업의 산림사업 참여 구조를 형성하였으며,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함

- 숲가꾸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영역과 협력하는 거버넌스형 사업 구조를 마련함
- 실업자를 산림사업(조림 및 숲가꾸기)으로 흡수하는 공공근로사업을 제안함
- ‘산림자원조성기금’ 및 ‘생명의 나무심기’ 사업은 국토녹화를 위한 조림과 건강한 산림 유지를 위한 숲가꾸기를 통해 우리나라 녹화 면적 증가에 기여함
- 또한,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일자리를 확대함

[표 14] IMP 분석 개요 - 산림자원조성사업 및 생명의 나무심기

구분	내용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국토 황폐화로 인한 산사태, 경관 훼손 문제	IMF로 인한 실업문제
조직의 솔루션	기금 조성을 통해 기업의 산림사업 참여 구조 형성, 거버넌스형 사업구조 마련	실업자를 산림사업(조림 및 숲가꾸기)으로 흡수하는 공공근로 사업 제안
Outcome	국토녹화를 위한 조림과 건강한 산림 유지를 위한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을 통한 일자리 증대	

○ IMP 분석 내용

- KKG의 ‘산림자원조성사업’ 및 ‘생명의 나무심기’는 국토 녹화 및 지속적인 산림관리를 추구하고 당시 심각했던 실업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에 사회적 성과가 있음
-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거치며 우리 국토는 황폐화 됨. 1953년 산림면적은 36,314,543m²였으며, 1ha당 임목축적은 5.66m³에 불과했음. 이로 인해 산사태, 경관 훼손 등 여러 방면에서 피해를 입음
- 그러나 당시 산림사업은 정부 주도로 진행되어, 지속적인 산림관리에 한계가 있었음
- 또한, 1997년 IMF로 인하여 1998년 2월 기준 실업자는 123만 5천명으로 당시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였음
-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한킴벌리는 전국에서 실업자

를 대상으로 산림분야(조림 및 숲가꾸기)에서 일할 수 있는 공공근로 사업을 제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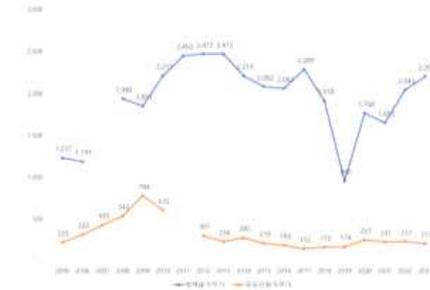
- 이 사업은 88,366,300㎡의 면적을 녹화하였으며, 65,646명의 일자리를 창출함
- 이는 SDGs 중 '8.3.1 비농업부문으로의 비공식 취업 비율', '8.5.2 실업률 (성별, 연령별, 장애인별)', '11.4.1 세계문화유산에 포함하는 국가문화, 자연유산의 보전, 보호, 및 관리에 배정된 국가(또는 지방)예산의 비율', '15.1.1 총 육지면적 중 산림면적의 비율', '15.2.1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에서의 진전', '17 파트너십'에 관한 목표를 달성함

[표 15] IMP 데이터 카테고리별 분석 - 산림자원조성사업 및 생명의 나무심기

차원	데이터 카테고리		
What	사회적 성과	국토 녹화 및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실업문제 해결
	요구되는 수준	-	
	해결방안의 중요성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거치며 국토가 황폐화 됨. 1953년 산림면적은 36,314,543㎡였으며, 1ha당 임목축적은 5.66㎡에 불과했음 이로인해산사태 등 국민들이 여러 방면에서 피해를 입음. 그러나 당시 산림사업은 정부가 일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지속적인 산림관리에 한계가 있었음	1998년 2월 기준 실업자는 123만 5천명의 실업자가 발생함
	SDG목표/글로벌목표	8.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8.3.1/8.5.2) 11. 지속가능도시 (11.4.1) 15. 육상생태계 (15.1.1/15.2.1) 17. 파트너십	
	Who	대상	국민, 국토
Who	지역	전국	전국
	기존상태	-	IMF로 인해 실직
	대상의 특성	-	IMF로 인해 실직
How much	규모	사업면적(88,366,300㎡)/일자리(65,646명)	
	심도	-	
Contribution	지속기간	비가역적	-
	심도 관련 공헌도	-	
Risk	지속기관 관련 공헌도	-	
	리스크 유형	-	
	리스크 수준	-	

○ Impact

- '숲가꾸기'의 필요성에 대한 국가 및 국민의 인식이 향상됨
- ('숲가꾸기'가 산림청의 핵심 정책사업으로 안착) 2004년 '숲가꾸기 5개년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숲가꾸기를 산림청의 핵심사업으로 발표함. 이후 예산을 꾸준히 증대해온 바 있음. 특히 IMF 당시 공공근로와 연계하여 일자리를 마련한 것을 계기로, '정책숲가꾸기'뿐 아니라 '공공산림가꾸기'를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을 지속해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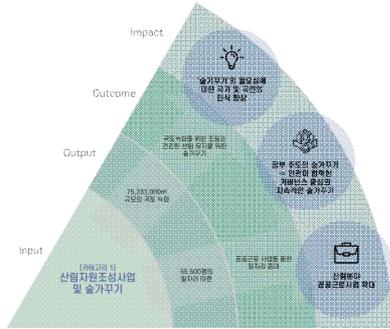
[그림 11] 산림청 '숲가꾸기' 예산 변화 추이
(출처: 산림청, 2006~2023, 재구성)

- ('국민들의 '숲가꾸기'에 대한 인식 증진) '1997년 설문조사 당시 '숲가꾸기' 항목 자체가 부재함. 2010년 '숲가꾸기 및 임도 개설 필요성'에 23%가 동의하였으며, 2023년에는 '숲가꾸기 필요성'에 82.9%, '임도개설 필요성'에 68.8%가 동의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도출됨



[그림 12] 숲가꾸기 및 임도 개설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
(출처: 한국갤럽, 1997; 산림청, 2010; 서울경제신문, 2023.05.31; 재구성)

- 정부 주도의 숲가꾸기에서 민관이 협력한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숲가꾸기'로 변화됨
 - ('숲가꾸기'를 바탕으로 한 기업의 CSR 활동 증가)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를 중심으로 한 기업의 CSR 활동이 증가함. 숲가꾸기 과정에서 기업은 국가, 지역사회와의 거버넌스를 구축함
 - (시민 및 전문가 집단의 '숲가꾸기'에 대한 관심 증진) 공공근로와 더불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숲가꾸기 참여 활성화 필요성과 시민사회와의 협력에 대한 국내 학술 논문이 1999년 이전까지는 전무했던 것에 비해 1999년 이후 20건 발행됨
- 산림분야의 공공근로사업이 확대됨
 - (산림분야의 공공근로사업 정책화) 정부의 산림분야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된 일자리 및 예산이 점차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자체로 확장됨.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녹색담의 수량 및 수질관리(국립산림과학원, 2001) 및 기술적 숲가꾸기로 발전(2001, 국립산림과학원) 등 환경적 측면의 장점도 도모함



[그림 13] KKG 사회적 임팩트 창출 모식도
-산림자원조사사업 및 생명의 나무심기
(출처: 연구진 작성)

9) 산림청은 2000년 국유림 공공근로 1천여 명 추가 고용 및 공공근로사업 예산의 400억 원에서 513억 원으로 증액 계획을 발표함(연합뉴스, 2000.12.27). 경기도는 2007년까지 올해와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할 방침을 발표함(문화일보, 2005.01.12.)

2) 집합적 임팩트 생태계 발전 단계 분석결과

1단계: 생성단계	2단계: 성장단계	3단계: 확장단계	4단계: 안정단계
<p>유한킴벌리의 아젠다 제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플랫폼 형성이 이루어지는 단계임</p> <p>1984~199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4) 산림청에 기업이 산림녹화사업에 참여하는 당시 전무 하던 구조를 제안함 • (1984) 유한킴벌리에서 '산림자원조성기금'을 조성하고, 산림청, 유한킴벌리, 산림조합 관계자, 전문가로 구성된 '산림자원조성 기금 운영위원회' 조직. 이때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산림자원조성기금'의 운영 및 집행 담당 • (1985) 360ha의 숲 조성. 이후 1994년까지 매년 60~190ha의 새로운 숲 조성. 1985년부터 2004년까지 총 65km 임도 조성 및 정비 • (1995년 이후) 숲가꾸기 사업 중심으로 산림자원조성기금 활용 	<p>다양한 이해관계자(기업, 정부, 시민사회 등)가 협력할 수 있는 구조로 실행 조직 및 거버넌스 조직이 구축되는 단계이며, 실행 조직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됨</p> <p>1998~200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 건강한 산림을 위해서는 숲가꾸기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필요성 제기. IMF 시기 산림생태계 진전과 동시에 실업문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정책을 개발하고 정부에 제안함 • (1988~) 전 국민 대상 숲가꾸기 중요성 캠페인 진행 • (1998) 숲가꾸기에 대한 국민인식 높이기 위해 '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 창립(정부, 기업, 시민사회 3자간의 거버넌스 모델을 주요한 운동 방식으로 추진) • (1998~2002)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 추진 • (1999) 정부에서 녹색사업단 조직. 이를 통해 녹색자금뿐 아니라 국공유 재산을 사용하여 발생한 수익금, 기부금, 후원금을 바탕으로 산림환경 개선사업 시행 • (1990년대) 생명의숲 국민운동을 시작으로, 동북아산림포럼, 평화의숲, 생태산촌, 서울그린트러스트 등 숲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시민운동 단체들의 창립 지원 	<p>정부, 시민사회 등 각 영역에서 더욱 다양한 조직들의 참여가 이루어짐. 시민참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며, 전 국민적 참여를 도모하는 기반을 형성하는 단계임</p> <p>2003 ~ 200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 숲가꾸기 사업이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채택되어, 매년 2천억 원 규모의 예산 투입하는 산림청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 • 산림 관련 시민단체 활동 지원 및 협력관계 유지 • 거버넌스형 사업 추진 모델을 활성화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시민참여의 기회를 만드는 역할 수행 	<p>사회 보편적 아젠다로 등극하고 공감대 형성되어 국민 참여가 활성화됨, 기구 형성, 제도 마련 등 정부 차원에서 접근(정책 사업 운영, 관련 법 제정 등)이 이루어진 단계임</p> <p>20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숲가꾸기 국민인식 향상¹⁰⁾ • (2009) 산림청은 「기업 참여 도시숲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 (2010) 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CSR 활동을 통한 산림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연구 진행¹¹⁾ • 2010년 기준 국내 500대 기업 중 15%인 75개가 산림분야 CSR에 참여하며¹²⁾, 기업의 산림분야 CSR 활동이 보편화 됨 • 숲가꾸기 공공근로를 시작으로 산림일자리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이는 산림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에 기여함¹³⁾. 이후 산림청은 산림일자리발전소 출범(2018)

10) 서울경제신문, 2023; 산림청, 2010; 한국갤럽, 1997
 11) 산림청, 2010
 12) 김재현 외, 2010
 13) 태유리, 2015

3. [카테고리 2] 산림문화(교육·체험·문학·예술) 확산

1) IMP 분석 결과

(1) 그린캠프

○ 프로그램 개요

- 유한킴벌리는 상대적으로 환경교육을 접할 기회가 적은 여고생들에게 숲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198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여름 ‘여고생 그린캠프’를 54회 기획 및 진행함
- 그린캠프에서는 숲체험, 숲 관련 토론, 봉사활동 등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이 제공됨

[표 16] 프로그램 개요 - 그린캠프

구분	내용	
기간	1987~2023	
목적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의식 증진을 위해 진행한 환경체험 교육	
대상	여자 고등학생	
주요내용	여고생 대상 숲체험캠프임. 숲길걷기를 통해 산림보국을 위한 모목 기증, 숲을 주제로 한 팀프로젝트 참여 등 자기주도형 숲체험프로그램 진행	
협력기관	산림청, 산림조합 중앙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산림과학원	
양적 성과	총 사업면적(㎡)	0
	총 식재본수	0
	숲가꾸기본수	0
	총사업본수	0
	숲길(m)	0
	참여자수(명)	5,670
	일자리-식재(명)	0
	일자리-숲가꾸기(명)	0
	일자리 합계(명)	0

○ IMP 분석 개요

- 사교육, 학교폭력, 스마트폰 중독 등 학생들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인 문제가 대두되며 지속가능한 녹색 성장을 위한 인적자원의 필요성이 대두됨
- ‘유엔 의제 21’에서 자연환경 보호에 있어 청소년과 여성의 역할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강조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세대인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숲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은 시대별 흐름에 맞춰 변화함
- 1990년대 그린캠프에서는 숲속생활 및 과학실험 등 환경 및 산림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2000년대에는 숲속영화제, 숲 표현하기 등 체험학습 및 다른 분야와 융합된 프로그램이 진행됨
- 2023 그린캠프에서는 숲현장에서 학습한 내용을 이용해 숲전문가에게 멘토링을 받으며 아이디어를 기획하는 산림환경 분야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됨
- ‘그린캠프’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환경 의식, 공동체 의식, 책임감이 증진됨
- 특히, 숲과 환경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정서적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창출함
- 참가자의 창의적 인성 변화가 참가 전후 평균 3.687에서 3.77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함

[표 17] IMP 분석 개요 - 그린캠프

구분	내용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사교육, 학교폭력, 스마트폰 중독 등 학생들의 사회문제 대두,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위한 인적자원 배양 필요성 대두
조직의 솔루션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숲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Outcome	청소년들의 환경 의식, 공동체 의식, 책임감 증진

○ IMP 분석 내용

- ‘그린캠프’는 여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함
- 이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나갈 미래세대이며, 환경과 사회에 대한 의식 함양이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음
- 그린캠프는 총 54회 진행되었으며, 총 5,670명의 청소년이 참가함. 대상자들은 그린캠프에 참가하며 환경의식, 공동체 의식, 책임감이 증진됨
- 이는 SDGs 중 ‘4.7.1 (i) 세계시민의식 교육 (ii) 양성평등과 인권을 포함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이 (a) 국가 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교육 그리고 (d) 학생평가 등 모든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범위’, ‘13.3.2 인구 100,000명 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그리고 피해를 입은 인구 수’에 관한 목표를 달성함

[표 18] IMP 데이터 카테고리별 분석 - 그린캠프

차원	데이터 카테고리	
What	사회적 성과	청소년들의 환경의식과 공동체 의식, 책임감 증진
	요구되는 수준	-
	해결방안의 중요성	-
	SDG목표/글로벌목표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모든 사람에게 평생 교육 기회 증진 (4.7.1)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대응(13.3.2)
Who	대상	여자 고등학생
	지역	전국
	기존상태	-
	대상의 특성	지속가능한발전을 이끌어 나갈 미래세대이며, 환경과 사회에 대한 의식 함양 필요
How much	규모	5,670명
	심도	-
	지속기간	비가역적
Contribution	심도 관련 공헌도	-
	지속기간 관련 공헌도	-
	리스크 유형	-
Risk	리스크 수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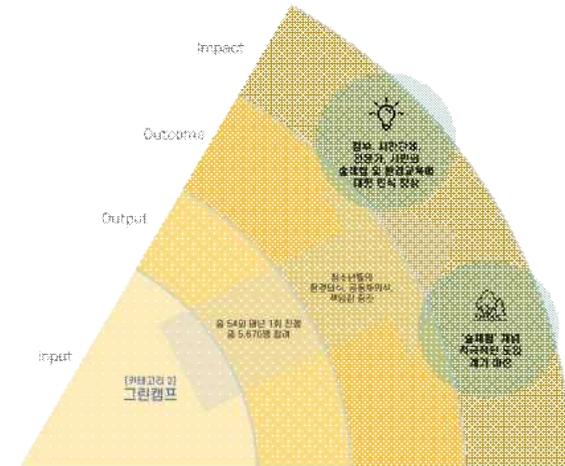
○ Impact

- '숲체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계기가 됨. 숲체험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산림청,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시민단체, 전문가, 시민의 숲체험 및 환경교육에 대한 인식이 향상됨.
- (산림 및 환경교육 제도화 및 관련된 법률 공포) 2012년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 제도(환경부) 실시, 2014년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산림청) 실시, 2021년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 2022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공포, 2023년 해당 법의 시행규칙 공포, 2023년 해당 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 등 정부 정책사업 및 법률 제정의 단초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숲체험' 주제의 학술연구 증가) 1998년부터 기존에는 전무하던 '숲체험'에 대한 학술논문이 4건 발행됨. 1987년부터 본 프로그램이 기획되었던 것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숲체험' 개념 도입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201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환경교육' 분야의 학술논문에 '숲 체험' 활동이 주요한 키워드로 등장함



[그림 14] '환경교육' 논문 관계도 (RISS, 2023년 6월 기준)

- (숲환경교육의 모델 제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저조했던 1980년대에 시작하여 국내 최초 필드 스터디 개념 도입, 환경부 인증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 1호'로 선정 등 초기에 산림 및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함



[그림 15] KKG 사회적 임팩트 창출 모식도-그린캠프 (출처: 연구진 작성)

2) 집합적 임팩트 생태계 발전 단계 분석

1단계: 생성단계	2단계: 성장단계	3단계: 확장단계	4단계: 안정단계
유한킴벌리의 아젠다 제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플랫폼 형성이 이루어지는 단계임	다양한 이해관계자(기업, 정부, 시민사회 등)가 협력할 수 있는 구조로 실행 조직 및 거버넌스 조직이 구축되는 단계이며, 실행 조직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됨	정부, 시민사회 등 각 영역에서 더욱 다양한 조직들의 참여가 이루어짐. 시민참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며, 전 국민적 참여를 도모하는 기반을 형성하는 단계임	사회 보편적 아젠다로 등극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국민참여가 활성화됨. 기구 형성, 제도 마련 등 정부 차원에서 접근(정책 사업 운영, 관련 법 제정 등)이 이루어진 단계임
1984~1999	2000~2004	2005~2015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4-1987) 숲과 환경문제에 대한 공익 캠페인 추진 (1985) 보다 많은 국민에게 나무심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나무심기 행사에 시민들을 초청하는 '신혼부부 나무심기' 프로그램 마련 (1988)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지 않았던 1980년대에 청소년 대상 환경교육 필요성을 제시. '어고생 그린캠프'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0) 전국에 있는 다양한 유형과 규모의 아름다운 숲들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이를 발굴하고 알리는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공모전 개최 (2001) 숲의 중요성과 사회적 인식을 향상하기 위해 문화예술분야와의 협력 필요성을 제기하고, '문학의 집 서울' 설립 지원 (2001~2005) '우리숲' 사이트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5) 평화의숲과 협력하여 신혼부부 나무심기 프로그램 진행(2020년 이후 생명의숲과 협력) (2015) 플레이포레스트와 협력하여 '아름다운 숲' 청년 모니터링단, '아름다운 숲기행'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숲해설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자연체험학습의 새로운 영역 형성. '숲해설가', '산림교육센터' 형성 '산림교육법' 제정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지역중심의 산림관광 플랫폼 제시(숲체원, 치유의숲 등에서 산림관광 프로그램 운영, 관련 정부기관과 협약 체결 등) 지자체(여수, 신안, 담양, 포항 등) 차원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수단으로 활용

4. [카테고리 3] 도시숲 조성 및 시민참여형 운영관리 확산

1) IMP 분석 결과

(1) 학교숲

○ 프로그램 개요

- 유한킴벌리는 학교숲 연구, 시범학교 선정, 조성 및 관리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함
 - 1995년~1997년 유한킴벌리는 학교숲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함
 - 1999년 공모를 통해 시범학교를 선정해 학교숲 조성을 지원하기 시작함
 - 2003년~2007년에는 산림청과의 협력을 통한 학교숲 조성 및 관리를 지원하여 도시녹지 확충에 기여함

[표 19] 프로그램 개요 - 학교숲

구분	내용	
기간	1999~2020	
목적	(사회적 의미) 지역공동체 의식 증진, (환경적 의미) 도시생태성 증진, (교육적 의미) 환경친화적 태도 육성(산림청 홈페이지)	
대상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주요내용	학교숲기금 기탁, 학교숲위크숍 및 세미나 등 지원, 연구활동 지원	
협력기관	산림청, 생명의숲	
양적 성과	총 사업면적(㎡)	1,106,730
	총 식재본수	2,881,934
	술가꾸기본수	0
	총사업본수	2,881,934
	술길(m)	0
	참여자수(명)	327,377/ 참여학교수(739)
	일자리-식재(명)	10,087
	일자리-술가꾸기(명)	0
일자리 합계(명)	10,087	

○ IMP 분석 개요

- 2000년대 수도권 인구집중 및 기후변화 문제가 대두됨. 또한, 도시 내 녹화공간이 부족하며 불균형을 이루고 있음
 - 1991년 기준,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시민 1인당 공원면적은 서울의

8.71㎡, 대구의 7.50㎡, 부산의 2.78㎡로 WHO에서 제시한 기준의 최저기준인 9.0㎡에 못 미침

- 2003년 기준, 서울 공원 녹지 75% 이상이 도시 외곽에 위치
- 사교육과 학교폭력 등 학생문제가 대두되었으며 도시 환경은 청소년들에게 자연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내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학교숲’을 조성하는 운동이 시작됨
 - 학교숲은 학생들에게 지역공동체 의식 및 환경 의식을 증진하며 학생들의 환경친화적 태도를 육성할 수 있음
- ‘학교숲’은 환경적, 사회적 측면에서 긍정적 결과를 이끔
 - 환경적 측면에서 도시녹지를 확충하며 도시 내의 녹지 불균형을 해소함
 - 사회적 측면에서 학생들의 환경의식 및 창의적 사고 증진에 기여함. 집중력, 호기심, 정서적 균형 등 교육적으로 효과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적대감, 행동공격성, 분노감을 18~20%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사교육 및 학교폭력과 같은 학생문제 해소를 도울 수 있음

- 또한,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생활환경 개선 및 수도권 교통대란 해소 등 다양한 도시 인프라 문제가 발생함

- 이와 더불어 청소년의 환경의식, 공동체 의식 증진이 요구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였음.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시작한 ‘학교숲’ 운동은 청소년의 환경의식 증진과 함께 도시녹지 확충을 통해 지역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공동체간 소통을 증진하는 사회적 성과를 이끔
- 이는 SDGs 중 ‘4.7.1 (i) 세계시민의식 교육 (ii) 양성평등과 인권을 포함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이 (a) 국가 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교육 그리고 (d) 학생평가 등 모든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범위’, ‘11.4.1 세계문화유산에 포함하는 국가문화, 자연유산의 보전, 보호 및 관리에 배정된 국가(또는 지방) 예산이 비율’, ‘11.6.2 도시 미세먼지(PM2.5 초미세먼지와 PM10 미세먼지)의 연평균수준 (인구수에 따른 가중)’, ‘11.7.1 도시에서 공공목적의 용도를 위해 개방된 시가화 지역이 차지하는 평균비율 (성별, 연령별, 장애상태별, 발생장소별)’, ‘13.3.2 인구 100,000명 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그리고 피해를 입은 인구수’, ‘15.1.1 총 육지면적중 산림 면적의 비율’, ‘15.2.1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에서의 진전’, ‘17 파트너십’에 관한 목표를 달성함

[표 20] IMP 분석 개요 - 학교숲

구분	내용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2000년대 수도권 인구집중 및 기후변화 문제 대두, 사교육과 학교폭력 등 학생문제 대두. 도시환경은 청소년들에게 자연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 내의 녹화공간이 부족하며 불균형을 이루고 있음	
조직의 솔루션	다양한 이해관계자(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하여 학교 내에 숲을 조성하는 학교숲 운동 시작	
Outcome	환경적 측면	도시녹지 확충, 도시 녹지 불균형 해소
	사회적 측면	학생들의 환경의식 및 창의적 사고 증진에 기여함

○ IMP 분석 내용

- ‘학교숲’은 1990년대 도시화, IMF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사교육, 학교폭력 등의 문제를 겪는 학생 및 학부모, 교사를 중심으로 진행됨
- 1990년대 다양한 도시 인프라 확충 문제가 시급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도시 녹지 부족 및 불균형 문제가 대두됨
 - 1990년대는 수도권 제1기 신도시 개발과 더불어 도시개발의 광역화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시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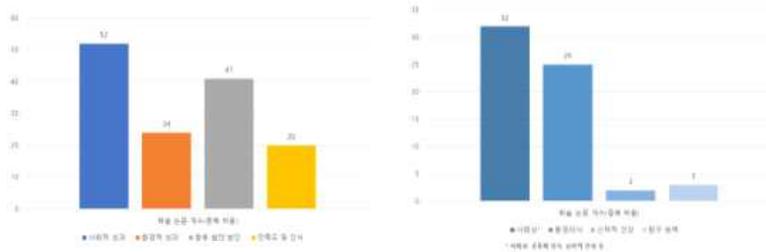
[표 21] IMP 데이터 카테고리별 분석 - 학교숲

차원	데이터 카테고리	
What	사회적 성과	청소년의 환경의식 증진, 도시녹지 확충을 통해 지역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공동체간 소통을 증진함
	요구되는 수준	-
	해결방안의 중요성	1990년대는 수도권 제1기 신도시 개발과 더불어 도시개발의 광역화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시기로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생활환경 개선 및 수도권 교통대란 해소 등 도시인프라 확충 문제가 시급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음
	SDG목표/글로벌목표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모든 사람에게 평생 교육 기회 증진 (4.7.1) 11. 지속가능도시 (11.4.1/11.6.2/11.7.1)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대응 (13.3.2) 15. 육상생태계 (15.1.1/15.2.1) 17. 파트너십
Who	대상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	전국
	기존상태	-
	대상의 특성	1990년대 도시화, IMF 등 사회, 환경 변화 속 청소년들이 겪는 문제가 대두됨

차원	데이터 카테고리	
		규모
How much	심도	-
	지속기간	비가역적
Contribution	심도 관련 공헌도	-
	지속기간 관련 공헌도	-
Risk	리스크 유형	-
	리스크 수준	-

○ Impact

- 학교의 교육 환경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학교숲'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함
- ('학교숲'이 정책사업으로 도입) 2001년 산림청이 '학교숲'을 본격적인 정책사업으로 도입하게 됨. 학교숲이 정책사업으로 정착하며 산림청, 지자체, 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학교숲이 형성됨.
- ('학교숲' 관련 학술연구 증가) 프로그램이 시행되어 '학교숲' 개념이 도입된 이후, 1999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학교숲'에 관한 학술논문이 총 133건 발간되었으며 심포지엄 등 학교숲 및 산림교육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됨. 학교숲 관련 학술논문은 점차 세부적인 주제로 구체화되어 연구됨. 2014년 '충북도 학교 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 충청북도의회를 통과하였으며 이어서 여러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공포함



[그림 16] (좌) '학교숲' 관련 학술논문 주제 현황(1999~2023), (우) '학교숲'이 학생들에게 미친 영향 관련 학술논문 현황(1999~2023) (출처: 연구진 작성)

- '학교숲'이라는 공간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유도함
- (새로운 일자리 창출) 학교숲 코디네이터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학교숲 관리를 위한 노인 등 취약계층을 고용함



[그림 17] '충북 청주시, 학교숲 코디네이터 활용한 생생한 숲 교육 제공' (출처: 2022.05.13., 청주일보, <https://www.cj-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9773>)

- ('학교숲' 공간을 교육에 활용) '학교숲'을 바탕으로 한 산림 및 환경교육이 활발히 진행됨. 유한킴벌리에서는 '학교숲 관찰일지 공모전' 개최 등을 통해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학교숲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그림 18] (좌) '2009 학교숲 관찰일지 공모전' 포스터(2009), (우) '2009 학교숲 관찰일지 공모전' 수상작(2009)

[2] 도시숲

○ 프로그램 개요

- 도시녹지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해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서울시 생활권 녹지를 확대 및 보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서울그린트러스트 운동에 참여함. 유한킴벌리는 서울그린트러스트 창립 준비부터 후원까지 지속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서울 그린트러스트에서는 시민참여형 도시숲의 모델인 ‘서울숲’ 조성, 전통 마을숲의 개념을 도시지역에 재현하는 ‘우리동네숲’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도시숲을 조성함

[표 22] 프로그램 개요 - 도시숲

구분	내용	
기간	2003(서울숲)/2009~2010(우리동네숲)/2016~2021(인텍스가든)	
목적	자연친화적 사회 대안 제시, 수도권 등 인구밀도가 높고 도시화로 환경문제가 심한 도시지역에 숲확장을 주도하는 숲운동	
대상	도시민	
주요내용	서울숲, 남산 및 한강숲, 우리동네숲, 인텍스 가든 등	
협력기관	서울그린트러스트, 생명의숲	
양적성과	총 사업면적(㎡)	1,064,100
	총 식재본수	148,383
	숲가꾸기본수	322,283
	총사업본수	470,666
	숲길(m)	0
	참여자수(명)	5000
	일자리-식재(명)	519
	일자리-숲가꾸기(명)	752
일자리 합계(명)	1,271	

○ IMP 분석 개요

- 2000년대 이후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도시문제가 심화되었으며 도시 녹지 공간이 부족. 시민들은 도시 녹지의 필요성을 느끼며 생활 녹지 향상 요구의 움직임이 시작됨
- 1991년 기준,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시민 1인당 공원면적은 서울의 8.71㎡, 대구의 7.50㎡, 부산의 2.78㎡로 WHO에서 제시한 기준의 최저기준인 9.0㎡에 못 미침

- 서울시민 6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서울의 숲이 부족하다는 답변이 88.6%, 생활녹지를 늘리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자는 67.4%였음(생명의 숲 국민운동, 서울그린트러스트, 2004)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문제에 대한 자연친화적 대안으로 ‘도시숲’ 조성 운동을 시작함
- 도시민들의 도시숲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여 우리나라 도시 녹지 공간을 확대하고자 함
- 서울숲(2003), 우리동네숲(2009~2010), 인텍스가든(2016~2021) 등 도시숲 조성 운동은 도시 내 녹지공간을 확대하는 것에 기여함

[표 23] IMP 분석 개요 - 도시숲

구분	내용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2000년대 이후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도시문제 심화되었으며 도시 녹지 공간이 부족함
조직의 솔루션	도시문제에 대한 자연친화적 대안으로 도시숲조성 운동 시작
Outcome	도시 내 녹지공간 확대

○ IMP 분석 내용

- ‘도시숲’ 조성 운동은 서울을 포함한 국내 도시에서 도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됨
- 서울을 포함한 국내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도시에 거주하며 도시문제(생활 녹지의 필요성 등)를 직면하고 있음
- 공원 녹지는 도시민의 삶의 질, 도시 거주성, 도시의 미적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김유일외, 2011) 때문에 중요함
- 도시숲 조성 운동은 도시숲을 조성함으로써 도시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환경분야의 거버넌스형 사업구조를 활성화하였다는 사회적 성과를 이끔
- 이는 SDGs 중 ‘11.4.1 세계문화유산에 포함하는 국가문화, 자연유산의 보전, 보호 및 관리에 배정된 국가(또는 지방) 예산이 비율’, ‘11.7.1 도시에서 공공목적의 용도를 위해 개방된 시가지 지역이 차지하는 평균비율 (성별, 연령별, 장애상태별, 발생장소별)’, ‘15.1.1 총 육지면적중 산림 면적의 비율’, ‘15.2.1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에서의 진전’, ‘17 파트너십’에 관한 목표를 달성함

[표 24] IMP 데이터 카테고리별 분석 - 도시숲

차원	데이터 카테고리	
What	사회적 성과	도시공원 증대를 통해 도시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환경분야의 거버넌스형 사업 구조를 활성화함
	요구되는 수준	-
	해결방안의 중요성	공원녹지는 도시민의 삶의 질, 도시거주성, 도시의 미적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김유일외, 2011)
	SDG목표/글로벌목표	11. 지속가능도시 (11.4.1, 11.7.1) 15. 육상생태계 (15.1.1, 15.2.1.) 17. 파트너십
Who	대상	도시민
	지역	서울을 포함한 국내 도시
	기존상태	도시에 거주하며 도시문제를 직면하고 있음
	대상의 특성	-
How much	규모	사업면적(23,800)
	심도	-
	지속기간	비가역적
Contribution	심도 관련 공헌도	-
	지속기간 관련 공헌도	-
Risk	리스크 유형	-
	리스크 수준	-

○ Impact

- 도시숲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도시숲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함.
- (도시숲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의 관계) 서울시 내 도시공원 이용경험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해 도시공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7.2%를 차지함. 특히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답변의 비중이 41.3%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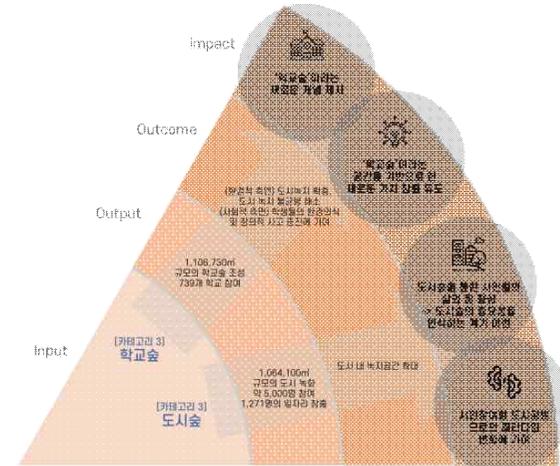


[그림 19] 서울시 도시공원 관련 인식조사 (서울연구원, 2021)

- (정원문화 확산) 도시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증진과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을 통해 ‘순천국가정원박람회’,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등 정원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2000년대 이후 일어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기여
 - (서울숲 컨서번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로 인하여 시민단체인 ‘서울숲 컨서번시’가 서울숲을 기획, 운영, 시민들과의 소통업무를 담당함
 - (서울로 7017) 서울로 7017의 시민참여 수목관리, 자원봉사 프로그램, 시민참여 캠페인 등과 같은 공원 및 수목원의 시민참여 사례가 증가함



[그림 20] 서울시 도시공원 민간참여 정책의 흐름(서울연구원, 2021, 재구성)



[그림 21] KKG 사회적 임팩트 창출 모식도-학교숲 및 도시숲 (출처: 연구진 작성)

2) 집합적 임팩트 생태계 발전 단계 분석결과

1단계: 생성단계	2단계: 성장단계	3단계: 확장단계	4단계: 안정단계
유한킴벌리의 아젠다 제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플랫폼 형성 이 이루어지는 단계임	다양한 이해관계자(기업, 정부, 시민사회 등)가 협력할 수 있는 구조로 실행 조직 및 거버넌스 조직이 구축 되는 단계이며, 실행 조직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추진 됨	정부, 시민사회 등 각 영역에서 더욱 다양한 조직들의 참여 가 이루어짐. 시민참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며, 전 국민적 참여를 도모하는 기반을 형성 하는 단계임	사회 보편적 아젠다로 등극하고 공감대가 형성 되어 국민참여가 활성화 됨, 기구 형성, 제도 마련 등 정부 차원에서 접근 (정책 사업 운영, 관련 법 제정 등)이 이루어진 단계임
1995~2001	2002~2006	2007~2015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5) 도시녹지 확보 및 학생들의 환경교육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교숲' 운동 제안. (1999) (사)생명의숲과 협력하여 '학교숲위원회' 설치 (1998) 초기에는 소규모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서울시의 '1천만 그루 나무심기'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의 규모 확장 (1999) 체계적인 학교숲 조성 매뉴얼 '숲이 있는 학교'제작 및 배포 (1999) 공모를 통해 수도권외의 10개 학교에서 시범사업 추진. 이후 전국단위로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지원 점차 확장 (2001) 산림청의 학교숲 개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2) 유한킴벌리와 (사)생명의숲은 서울시의 녹지 면적을 확대하고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서울그린비전 2020'이라는 정책연구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이를 서울시에 제안. '독성 시민공원 조성', '김포공항부지 시민공원화', '경춘선 폐철로부지 녹지로 복원' 등 다양한 정책 의제를 제안 (2003)위 사업들을 시민참여형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그린트러스트 재단'을 설립할 것을 제안. 서울그린트러스트(SGT) 창립 및 활동 지원 (2003) 서울숲 조성 지원 (2003) 학교숲이 산림청 협력사업으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숲 조성에 기업(삼성화재, LG 상록재단, 듀폰코리아), 시민단체(녹색연합), 정부 부처(교육부, 환경부), 지자체(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청주시, 경기도 교육청, 부산광역시 교육청, 강원도 교육청, 전라북도 교육청) 참여 부산그린트러스트, 수원그린트러스트, 광주푸른길 등 유사한 활동을 하는 도시숲 운동 단체들이 창립되었으며, 시민참여 확산 기반을 마련함 (2007~2010) SGT는 '전통 마을숲' 개념을 도시에 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동네숲' 프로젝트를 시작. 유한킴벌리는 '제1호 우리동네숲' 후원을 시작으로 총 7곳의 우리동네숲 프로젝트에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2021) 한강 인덱스가든 프로젝트 진행 정원문화 확산(4) 도시숲 법제도 진화, 설계 및 관리 제도 도입 산림청 보호수 정책 마련 및 나무의사, 나무병원 개념 도입

14) 최수정, 2015/ 서울경제신문, 2023.05.31., 국민들 다수 "숲가꾸기, 임도확대 필요하다" 인식

5. [카테고리 4]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

1) IMP 분석 결과

(1) 공존숲

○ 프로그램 개요

- 2015년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를 넘어 '숲과 사람의 공존'이라는 비전을 가진 새로운 캠페인이 전개됨. 그 중 '지역숲'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존숲 사업이 시작됨
- 공존숲은 지역사회와 함께 숲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가꾸고 지역사회에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과 지역사회의 공존을 도모하는 숲
- 2015년 김촌공존숲, 2017년 대전공존숲, 2021년 용인석포숲이 조성됨

[표 25] 프로그램 개요 - 공존숲

구분	내용	
기간	2015 ~ 현재	
목적	다양한 형태의 산림서비스 창출, 탄소상쇄 효과	
대상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김천공존숲 조성 • 2017년: 대전공존숲 조성 • 2021년: 용인석포숲 조성 예정(시민참여형 탄소중립의숲 1호 조성 협약)을 체결함 	
협력기관	김천시, 중부지방산림청, 목부지방산림청	
양적 성과	총 사업면적(㎡)	1,959,000
	총 식재본수	21,300
	숲가꾸기본수	566,400
	총사업본수	587,700
	숲길(m)	1,957
	참여자수(명)	4,485
	일자리-식재(명)	75
일자리-숲가꾸기(명)	1,322	
일자리 합계(명)	1,396	

○ IMP 분석 개요

- 성숙단계에 도달한 우리나라 산림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시작됨
- '생명의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와 숲의 목적과 기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의 모델의 가능성을 확인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숲과 사람의 공존’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기업과 지역사회가 공존할 수 있는 숲인 ‘공존숲’을 조성함
 - 2015년 김천공존숲, 2017년 대전공존숲 조성
 - 2021년 용인석포숲 조성 예정. 시민참여형 탄소중립의 숲 1호 조성 협약을 체결함
- 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 공존숲을 조성함으로써 생태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
 - 공존숲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숲을 생태적으로 조성함
 - 공존숲으로 창출된 산림복지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지공함

[표 26] IMP 분석 개요 - 공존숲

구분	내용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성숙단계에 도달한 우리나라 산림의 지속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부재
조직의 솔루션	기업과 지역사회가 공존할 수 있는 ‘공존숲’ 조성 (김천공존숲, 대전공존숲, 용인석포숲)
Outcome	공존숲 조성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거버넌스 구축

○ IMP 분석 내용

- 김천시, 대전시, 용인시를 대상으로 하여 공존숲 및 시민참여형 탄소중립의 숲이 조성됨
 - 대상 숲은 숲가꾸기가 진행되었으나 지속적인 숲 관리 및 환경적, 문화적 차원에서의 보전이 필요함
 - 산림복지적 측면에서는 휴양객들의 건강한 이용이 요구됨
-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공존숲 조성이 진행됨
 - 김천시, 유한킴벌리, 생명의숲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조직인 ‘김천 공존숲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2~4회 계획과 평가, 현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함
 - ‘대전공존숲’에서는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함
- ‘공존숲’을 통해 탄소상쇄 및 산림관리, 시설 보완과 관리, 숲지킴이와 자원봉사,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사회적 성과를 얻음

- 김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존숲 탐방 프로그램’을 2016년~2019년에 매년 2~3회 진행함
-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한 ‘도시숲 어린이 생태학교’를 대전충남생명의숲 주관으로 2016년~2018년 매월 1회 진행함
- 이는 SDGs 중 ‘11.4.1 세계문화유산’을 포함하는 국가문화, 자연유산의 보전, 보호 및 관리에 배정된 국가(또는 지방) 예산이 비율’, ‘11.6.2 도시 미세먼지(PM2.5초미세먼지와 PM10미세먼지)의 연평균 수준 (인구수에 가중)’, ‘11.7.1 도시에서 공공목적의 용도를 위해 개방된 시가화 지역이 차지하는 평균비율 (성별, 연령별, 장애상태별, 발생장소별)’, ‘15.1.1 총 육지면적중 산림 면적의 비율’, ‘15.2.1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에서의 진전’, ‘17 파트너십’에 관한 목표를 달성함

[표 27] IMP 데이터 카테고리별 분석 - 공존숲

차원	데이터 카테고리	
	사회적 성과	탄소상쇄 및 산림관리, 시설 보완과 관리, 숲지킴이와 자원봉사, 거버넌스 구축
What	요구되는 수준	-
	해결방안의 중요성	대부분 우리나라의 산림은 지속적인 숲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이 강조됨에 따라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숲 관리 및 숲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됨
	SDG목표/글로벌목표	11. 지속가능도시 (11.4.1/11.6.2/11.7.1) 15. 육상생태계 (15.1.1 / 15.2.1) 17. 파트너십
Who	대상	김천시민, 대전시민, 용인시민
	지역	김천시, 대전시, 용인시
	기존상태	-
	대상의 특성	-
How much	규모	1,959,000㎡
	심도	-
Contribution	지속기간	-
	심도 관련 공헌도	-
	지속기간 관련 공헌도	-
Risk	리스크 유형	-
	리스크 수준	-

○ Impact

- 비교적 최근 본격화된 사업으로 사회적 임팩트가 축적된 이후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2] 시니어 산촌학교

○ 프로그램 개요

- 2016년~2019년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개설
 - 2015년 ‘도시 거주 또는 귀농, 귀촌인들의 생태적, 경제적, 지역친화적인 산림 이용을 통한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사업과 시범사업을 진행함
 - 총 7기의 교육과정을 통해 연인원 268명이 수료함. 2020년 특별프로그램으로 영상강좌 ‘슬기로운 산촌생활’을 진행함

- ‘시니어 산촌학교’는 산촌에서의 소득 및 일자리, 기후변화 등을 주제로 한 이론교육 및 현장교육이 입문단계, 심화단계의 2단계로 구성됨
- ‘시니어 산촌학교’를 통해 귀촌인구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줌

[표 28] 프로그램 개요 - 공존숲

구분		내용
기간		2016 ~ 2020
목적		귀산촌을 준비하는 도시민의 숲에 대한 이해와 활용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귀농귀촌 희망자
주요내용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개설
협력기관		-
양적 성과	총 사업면적(㎡)	-
	총 식재본수	-
	숲가꾸기본수	-
	총사업본수	-
	숲길(m)	-
	참여자수(명)	994
	일자리-식재(명)	-
	일자리-숲가꾸기(명)	-
일자리 합계(명)		-

○ IMP 분석 개요

- 많은 도시민들이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있으며, 귀촌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2014년 기준 전국 귀농가구는 11,144가구였으며, 귀촌가구는 33,442가구로 귀농가구는 2012년(11,220가구) 대비 큰 차이가 없었으나 귀촌가구는 2012년(15,788가구) 대비 2배 이상 증가
- 대부분의 귀촌가구가 귀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니어 산촌학교’라는 명칭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귀산촌 관련 정보를 제공함

[표 29] IMP 분석 개요 - 시니어 산촌학교

구분	내용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귀촌가구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귀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
조직의 솔루션	교육과정 개설을 통하여 귀산촌과 관련한 정보 제공
Outcome	귀촌 인구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기반 마련

○ IMP 분석 내용

- ‘시니어 산촌학교’는 귀산촌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귀산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됨
 - 교육 지원자는 2,159명으로 평균 연령이 8:1에 이를 정도로 많은 관심을 얻음. 2020년에 진행한 특별프로그램 ‘슬기로운 산촌생활’에는 실시간 참여자수가 650명이 이음. 이를 통해 귀산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음을 추정할 수 있음
- 총 7기의 시니어 산촌학교를 통해 994명의 귀산촌 희망자가 수료하며 귀산촌을 준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고 기반을 마련함
-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 귀산촌 사례 등 귀산촌 정착을 위한 교육을 제공함
- 이는 SDGs 중 ‘4.7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속가능한 생활방식, 인권, 양성 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적 다양성 및 문화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여함에 대한 공감을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에 관한 목표를 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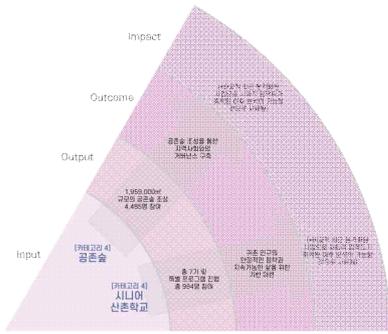
[표 30] IMP 데이터 카테고리별 분석 - 시니어 산촌학교

차원	데이터 카테고리	
What	사회적 성과	귀산촌에 막연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 귀산촌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요구되는 수준	-
	해결방안의 중요성	귀촌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SDG목표/글로벌목표	4.양질의 교육 (4.7)

차원	데이터 카테고리	
Who	대상 지역	귀산촌 희망자
	기준상태	-
	대상의 특성	-
How much	규모	994명
	심도	-
	지속기간	-
Contribution	심도 관련 공헌도	-
	지속기간 관련 공헌도	-
	리스크 유형	-
Risk	리스크 수준	-

○ Impact

- 비교적 최근 본격화된 사업으로 사회적 임팩트가 축적된 이후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하여 귀산촌 프로그램이 위축됨에 따라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그림 22] KKG 사회적 임팩트 창출 모식도
-공존술 및 시니어 산촌학교
(출처: 연구진 작성)

2) 집합적 임팩트 생태계 발전 단계 분석결과

1단계: 생성단계	2단계: 성장단계	3단계: 확장단계	4단계: 안정단계
유한킴벌리의 아젠다 제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플랫폼 형성이 이루어지는 단계임	다양한 이해관계자(기업, 정부, 시민사회 등)가 협력할 수 있는 구조로 실행 조직 및 거버넌스 조직이 구축되는 단계이며, 실행 조직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됨	정부, 시민사회 등 각 영역에서 더욱 다양한 조직들의 참여가 이루어짐. 시민참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며, 전 국민적 참여를 도모하는 기반을 형성하는 단계임	사회 보편적 아젠다로 등극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국민참여가 활성화됨, 기구 형성, 제도 마련 등 정부 차원에서 접근(정책 사업 운영, 관련 법 제정 등)이 이루어진 단계임
2005~2009	2010~2014	2015~2017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5~2009) 유한킴벌리는 농산촌 인구감소 및 폐쇄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 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농산촌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지킬 필요성 제기. '학습형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 정책 연구를 생명의숲, 시민경제사회연구소와 함께 진행하여 10가지 일자리 모델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대통령직속 '사람인국신경쟁력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 제안함. 또한 농림부, 문화관광부, 산림청 등 관련된 정부부처와도 정책 협의를 진행. 이후 진안군, 제천시와 '마을조사단' 시범사업 추진. 사업 종료 후 2009년 진안군 마을조사단 활동가들이 독립적인 단체 결성 (2001~2022) 산촌이 생태적으로 조성 및 관리되고, 도시민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생태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생태산촌 운동'에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조사단 사업 종료 이후 '생태산촌운동' 및 '내셔널트러스트' 운동 참여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 '2015년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 3.0 비전'을 발표하여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를 넘어 '숲과 사람의 공존'이라는 비전 제시 (2015) '지역숲'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숲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가꾸고 지역사회에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과 지역사회의 공존을 도모하는 숲'으로 지속가능한 숲 관리와 지역사회의 숲지킴이, 리더를 양성하여 지역사회에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숲과 새롭게 만나는 방법을 제시. 대전시, 김천시 공존숲 조성, '공존술 운영위원회' 구성 (2015~2019) '도시 거주 또는 귀농·귀촌인들의 생태적, 경제적, 지역친화적인 산림 이용을 통한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과정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사업과 시범사업을 진행함. 이후 '시니어 산촌학교'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자원조사' 개념 정착을 통해 커뮤니티 비즈니스 (Community Business) 활성화에 기여. 이는 CB 개념을 기반으로 완주군, 정선군 등 지자체가 '지속가능한 지역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영향력을 미침 산림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이후 산림일자리발전소 설립을 통해 그루매니저, 그루경영체 시스템 정착

6. [카테고리 5] 국외 숲만들기

1) IMP 분석 결과

(1) 몽골 산림복원 & 중국 사막화방지 나무심기

○ 프로그램 개요

- 우리나라의 인접국가로 황사 등의 피해를 주고 있는 중국(한몽우의 립)과 몽골(토진나르스 지역)에 숲 조성
 - 1992년 리우회의, 1994년 사막화 방지 조약 등 사막화가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 지속적인 생태계 보전과 관리를 위해 동북아산림포럼 참여하여 몽골 토진나르스 지역의 숲가꾸기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표 31] 프로그램 개요 - 몽골 산림복원 & 중국 사막화방지 나무심기

구분	내용	
기간	2001~2023	
목적	사막화 방지를 통한 동북아 지역 생태계 증진	
대상	-	
주요내용	몽골 산림복원, 중국 사막화방지 나무심기	
협력기관	동북아산림포럼, 중국 국가임업국, 북경임업대학, 주중한국대사관, 몽골 자연환경부	
양적 성과	총 사업면적(㎡)	41,920,000
	총 식재본수	10,552,000
	숲가꾸기본수	2,400,000
	총사업본수	12,952,000
	숲길(m)	-
	참여자수(명)	-
	일자리-식재(명)	36,932
	일자리-숲가꾸기(명)	5,600
	일자리 합계(명)	42,532

○ IMP 분석 개요

- 전세계적으로 사막화 문제가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의 인접국가인 몽골, 중국의 산림 황폐화, 사막화 증대 문제가 심각해짐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및 몽골의 사막화가 심각한 지역에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

- 또한, 동북아 지역 생태계 증진을 위한 지속가능한 논의가 가능하도록 동북아산림포럼의 창립 및 활동을 지원함
 - 동북아산림포럼을 통해 동북아 지역 생태계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함
- ‘몽골 산림복원 및 중국 사막화방지 나무심기’ 사업을 통하여 중국 및 몽골의 41,920,000㎡ 규모의 산림 면적을 확보함으로써 사막화 방지에 기여함

[표 32] IMP 분석 개요 - 몽골 산림복원 & 중국 사막화방지 나무심기

구분	내용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산림 황폐화, 사막화 증대
조직의 솔루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및 몽골의 사막화가 심각한 지역에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추진 • 동북아 지역 생태계 증진을 위한 지속가능한 논의가 가능하도록 동북아산림포럼 창립 및 활동 지원
Outc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및 몽골 지역의 산림면적 증대를 통한 사막화 방지(사막화 지역에 41,920,000㎡ 규모의 산림면적 확보) • 동북아 지역 생태계 증진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 IMP 분석 내용

- 대상지인 몽골 토진나르스와 중국 북경시 밀운저수지 인근 및 내몽그 츠평은 산불, 벌채 등으로 사막화가 급증하고 있으며, 황사의 발원지이기도 함
 - 몽골의 경우, 사막화 속도가 더욱 빨라져 2010년에 사막화가 심각한 지역이 6.7%, 사막화가 중간 정도 진행된 지역이 25.9%로 증가함
 - 이후 사막화가 심각한 지역이 9.9%로 급증하였으며, 몽골 전국토의 77.8%에서 사막화가 진행되는 등 사막화 문제 해결이 중요한 환경 문제로 대두됨
- 몽골, 중국의 사막화 문제는 한반도의 황사와 미세먼지를 급증시키는 등의 영향을 미침
- 41,920,000㎡ 규모의 지역에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생태계 증진 및 지속적인 협력을 실현하게 하는 사회적 성과를 이끔
- 이는 SDGs 중 ‘13.3.2 적응, 완화, 그리고 기술 이전 및 개발 이행을

위한 기관, 체계, 그리고 개인적인 역량 강화를 홍보한 국가의 수’, ‘15.1.1 총 육지면적중 산림 면적의 비율’, ‘15.2.1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에서의 진전’, ‘15.6.1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의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 행정적, 그리고 정책적인 기반을 채택한 국가의 수’, ‘17 파트너십’에 관한 목표를 달성함

[표 33] IMP 데이터 카테고리별 분석 - 몽골 산림복원 & 중국 사막화방지 나무심기

차원	데이터 카테고리	
What	사회적 성과	중국 및 몽골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동북아 지역 생태계 증진 및 지속적인 협력을 실현함
	요구되는 수준	-
	해결방안의 중요성	몽골의 사막화 속도가 더욱 빨라져 2010년에 사막화가 심각한 지역이 6.7%, 사막화가 중간 정도 진행된 지역이 25.9%로 증가함. 이후 사막화가 심각한 지역이 9.9%로 급증하였으며, 몽골 전국토의 77.8%에서 사막화가 진행됨. 몽골 및 중국의 사막화로 인해 한반도에 황사와 미세먼지가 급증함
	SDG목표/ 글로벌목표	13. 기후변화 대응 (13.3.2)
		15. 육상생태계 (15.1.1, 15.2.1, 15.6.1)
17. 파트너십		
Who	대상	몽골 토진나르스/ 중국 북경시 밀운저수지인근 및 내몽고 초평
	지역	몽골 토진나르스/ 중국 북경시 밀운저수지인근 및 내몽고 초평
	기존상태	-
	대상의 특성	산불, 벌채 등으로 사막화가 급증하고 있으며, 황사의 발원지이기도 함
How much	규모	41,920,000㎡
	심도	-
	지속기간	22년
Contribution	심도 관련 공헌도	-
	지속기간 관련 공헌도	-
	리스크 유형	-
Risk	리스크 수준	-

○ Impact

- 국제산림협력의 추진력이 향상됨
 - (국제산림협력이 산림청의 주요 사업으로 설정) 2000년대 초반 한국의 국제산림협력사업비는 연간 ODA 총액의 0.3% 미만(유병일, 2005)이었으나 산림청과 FAO, CBD, UNCCD 간의 협력사업, 2008년 중국, 몽골 등 동북아 산림협력 자원외교사업 등으로 확장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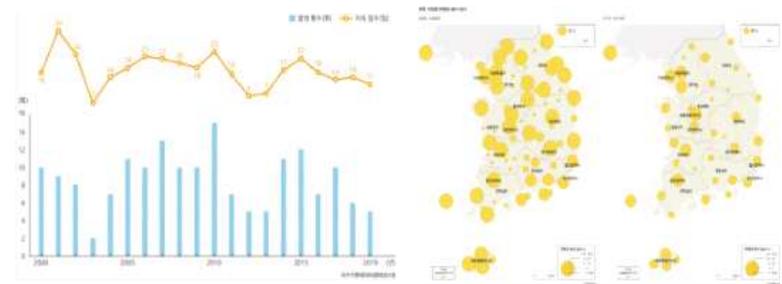
- (AFoCO 설립) 산림협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촉진하며 기후변화의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간 기구인 아시아협력기구(AFoCO)가 설립됨



그림 23 AFoCo 활동 사진, '산림청 주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기후변화 해결에 앞장선다' (출처: 동아일보, 2020.12.22.,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1222/104580521/1>)

- 국내 황사 발생 빈도 소폭 감소

- 2001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간 황사 발생 빈도를 파악한 결과 그 빈도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4] (좌) 연간 황사 발생빈도(2001~2019), (우) 관측 지점별 연평균 황사 일수 (출처: 국가자료집 2권, 2020)

(2) 북한 황폐지 복원

○ 프로그램 개요

-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북한 황폐지 복구를 위한 묘목, 종자, 물자를 지원하였으며 이는 평양, 남포, 금강산 지역의 산림복구를 위한 조림사업에 투입됨
- 산림자원기금을 활용해 북한 산림황폐지 복구를 추진하는 방안과 시범사업 등을 제안하여 시민단체인 ‘평화의숲’을 설립함
- 2003년부터는 북한 산림복구를 위한 양묘장을 설립하여 지속적인 조림과 숲을 통한 남북협력의 기반을 마련함

[표 34] 프로그램 개요 - 북한 황폐지 복원

구분	내용	
기간	1999~2020	
목적	북한 황폐화 복원	
대상	-	
주요내용	북한 황폐화 복원사업	
협력기관	평화의숲	
양적 성과	총 사업면적(㎡)	24,690,000
	총 식재본수	12,859,150
	숲가꾸기본수	-
	총사업본수	12,859,150
	숲길(m)	-
	참여자수(명)	-
	일자리-식재(명)	45,007
	일자리-숲가꾸기(명)	-
일자리 합계(명)	45,007	

○ IMP 분석 개요

-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시기 이후 극심한 산림황폐화를 겪어왔음(양아람외, 2020)
-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산림건설총계획(2013~2042)을 수립하여 30년간 북한 지역의 산림을 복구한다는 계획이 있음
- 북한의 산림황폐화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 황폐지 복원’ 사업을 통해 조림사업을 지원하고 양묘장을 설립함

- 평양, 남포, 금강산 지역의 산림복구를 위해 조림사업을 지원함
- 지속적인 산림 복구를 위해 양묘온실 3개동, 노지 양묘장 2개소 등 양묘장을 설립함
- 북한 고성군 금천리 일대에 100ha의 밤나무 단지를 조성함
- 이로 인해 24,690,000㎡ 규모의 북한 산림을 복구함

[표 35] IMP 분석 개요 - 북한 황폐지 복원

구분	내용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북한 산림의 황폐화
조직의 솔루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 남포, 금강산 지역 등의 산림복구를 위해 조림사업 지원 • 지속적인 산림 복구를 위해 양묘장 설립(양묘온실 3개동, 노지 양묘장 2개소), 북한 고성군 금천리 일대에 밤나무 단지 조성(100ha)
Outcome	• 북한 산림 복구 (24,690,000㎡ 규모의 산림 복구)

○ IMP 분석 내용

- 전 세계적으로 북한의 산림 황폐화 문제가 대두됨
 - 1999년 북한의 산림 황폐화 면적은 163만ha, 2008년에는 284만ha로 크게 증가함(voakorea. 2019.08.28.)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 황폐지인 평양, 남포, 금강산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복구를 위한 조림사업을 지원하였으며 북한 황폐지를 복원하는 사회적 성과를 얻음
- 이는 SDGs 중 ‘15.1.1 총 육지면적중 산림 면적의 비율’, ‘15.2.1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에서의 진전’, ‘16. 평화와 정의, 제도’, ‘17 파트너십’에 관한 목표를 달성함

[표 36] IMP 데이터 카테고리별 분석 - 북한 황폐지 복원

차원	데이터 카테고리	
What	사회적 성과	북한 황폐지 복원
	요구되는 수준	-
	해결방안의 중요성	전 세계적으로 북한의 산림 황폐화 문제가 대두됨. 1999년 북한의 산림 황폐화 면적은 163만ha, 2008년에는 284만ha로 크게 증가함 (voakorea. 2019.08.28.)
	SDG목표/글로벌목표	15. 육상생태계 (15.1.1, 15.2.1) 16. 평화와 정의, 제도 17. 파트너십

차원	데이터 카테고리	
Who	대상	북한 황폐지
	지역	북한 황폐지
	기존상태	-
	대상의 특성	-
How much	규모	24,690,000㎡
	심도	-
	지속기간	?
Contribution	심도 관련 공헌도	-
	지속기간 관련 공헌도	-
	리스크 유형	-
Risk	리스크 수준	-

○ Imp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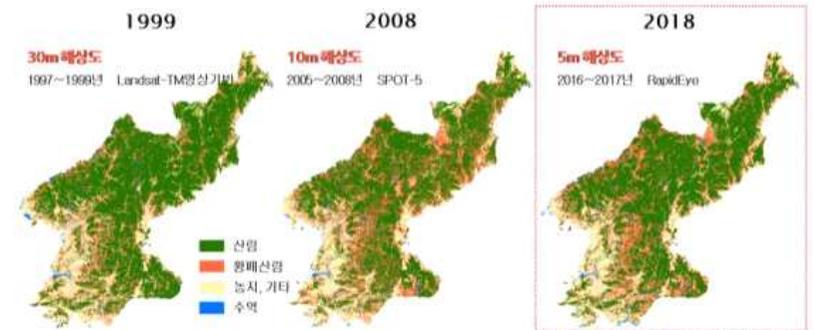
- 숲을 통한 남북협력의 기반을 마련함
 - (산림복원사업 지원 단체 ‘겨레의 숲’ 창립)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 20여개의 시민단체, 산림환경단체, 종교계가 모여 2007년 4월 ‘겨레의숲’ 활동으로 확장되었으며 이는 남북 정상 간의 ‘2018년 평양공동선언’까지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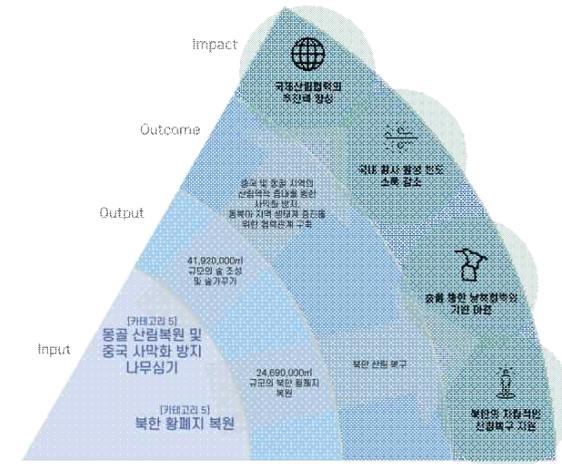
[그림 25] (좌) ‘NGO 연대기구 ‘겨레의 숲’ 창립 (우) ‘평양공동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전문
 (출처: 통일신문, 2007.04.10., <https://www.unityinfo.co.kr/4815>;
 연합뉴스, 2018.09.19. <https://www.yna.co.kr/view/AKP20180919090600001>)

- (남북산림협력 관련 정책 및 시설 마련) 산림청은 2009년 통일부, 농림부 등과 ‘남북산림협력기본계획’ 수립, 2020년 한반도 산림 생태계 복원에 필요한 묘목, 자재, 기술 등을 마련하기 위한 ‘남북산림협력센터’ 준공

- 북한 산림 황폐지 면적 감소 및 양묘장 건설 등을 통한 북한이 자립적인 산림복구가 가능하도록 함
 -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림 실태 모니터링 결과 2008년~2018년 간 북한 황폐지 면적은 22만ha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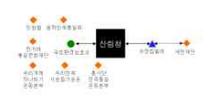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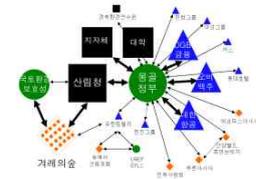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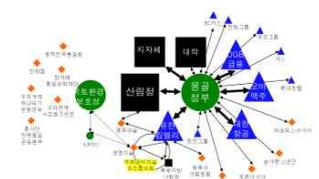


[그림 26] 시기별 북한 산림실태지도 (1999, 2008, 2018)
 (출처: 양아람외, 2020.12)



[그림 27] KKG 사회적 임팩트 창출 모식도
 -몽골 산림복원 및 중국 사막화 방지 나무심기, 북한 황폐지 복원
 (출처: 연구진 작성)

2) 집합적 임팩트 생태계 발전 단계 분석결과

1단계: 생성단계	2단계: 성장단계	3단계: 확장단계	4단계: 안정단계
<p>유한킴벌리의 아젠다 제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플랫폼 형성이 이루어지는 단계임</p> <p>1994~199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4년 산림청 남북 공무원 상호파견계획 마련 이후 남북협력 사업에 있어, 산림분야가 대두됨.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북한의 산림 황폐화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유한킴벌리는 세민재단, 산림전문가들과 함께 북한의 산림복구를 위한 논의와 준비를 시작함 산림자원조사기금을 활용한 '동북아국가의 산림황폐화 실태 및 복구 대책 연구'를 통해 '남북협력의 시범사업으로' 북한 산림황폐지 복구를 추진하는 방안과 '북한지역 황폐산림복구사업단'을 NGO 기구 내에 설치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제안 또한 시범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 유한킴벌리는 사막화 방지를 통한 동북아 지역 생태계 증진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유한킴벌리는 시민단체인 세민재단, 산림전문가들과 함께 황사의 발원지인 중국과 몽골에 숲을 조성하여 지구 환경에도 기여하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한생활에도 기여하는 국제협력사업을 기획 	<p>다양한 이해관계자(기업, 정부, 시민사회 등)가 협력할 수 있는 구조로 실행 조직 및 거버넌스 조직이 구축되는 단계이며, 실행 조직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됨</p> <p>1998~200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8~1999) 동북아산림포럼, 평화의숲 창립 및 활동 지원 (1999~) 북한에 목욕, 물품 지원 (2001~2004) 한중우의림 조성 (2003~2014) 한동우의림 조성 	<p>정부, 시민사회 등 각 영역에서 더욱 다양한 조직들의 참여가 이루어짐. 시민참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며, 전 국민적 참여를 도모하는 기반을 형성하는 단계임</p> <p>2007~20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6~2014) UNEP EPLC 창립 및 활동 지원 (2007)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 20여 개의 시민단체, 산림환경단체, 종교계 등이 모여 '겨레의숲' 활동으로 확장 (2015) 몽골 토진나르스 숲가꾸기 지속, 한국형시설 양묘장설치 	<p>사회 보편적 아젠다로 등극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국민 참여가 활성화됨, 기구 형성, 제도 마련 등 정부 차원에서 집권(정책 사업 운영, 관련 법 제정 등)이 이루어진 단계임</p> <p>20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 북부지방산림청, 유한킴벌리, (사)생명의숲이 '미래준비의숲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실무 추진 방안 협의 (2018) 북한의 국토환경보호성, IUFRRO, 생명의숲 3자간 '남북산림협력협의의 체결' (2018) 몽골 토진나르스 생태타워 준공 (2018) AFoCO 설립 국제산림협력력이 산림청의 주요 사업으로 설정
			

7. [카테고리 6] 탄소중립 및 생물 다양성 증진

1) IMP 분석 결과

(1) 생물다양성 및 탄소중립의 숲

○ 프로그램 개요

- 대전공존숲, 김천공존숲 조성을 통해 탄소흡수량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으며, 충주시 소나무숲 복원 등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
- 다양한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2010년~2012년 중부지방산림청과 '소나무림 복원 연구'를 위한 공동산림사업 협약' 체결 및 22.6ha의 숲 조성
- 2021년 9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멸종위기 고산침엽수 보호 및 보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표 37] 프로그램 개요 - 생물다양성 및 탄소중립의 숲

구분	내용	
기간	2015~2023	
목적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중립 실현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함	
대상	-	
주요내용	'공존숲' 조성, '멸종위기종 생태복원숲' 조성	
협력기관	(사)평화의숲, 생명의숲, 지자체(김천), 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백두대간수목원	
양적 성과	총 사업면적(㎡)	2,009,000
	총 식재본수	74,250
	숲가꾸기본수	566,400
	총사업본수	640,650
	숲길(m)	1,957
	참여자수(명)	129 (숲지킴이, 숲체험 프로그램 [4,485])
	일자리-식재(명)	260
	일자리-숲가꾸기(명)	1,322
일자리 합계(명)	1,581	

○ IMP 분석 개요

- 기후변화로 인하여 탄소 중립이 중요한 환경문제로 대두됨
- 2005년 교토의정서 발효 등 탄소 중립에 관한 세계적인 움직임이 활발해짐

-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감소가 중요한 환경문제로 대두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존숲’, ‘멸종위기종 생태복원숲’을 조성함
 - 멸종위기종을 위한 서식지를 마련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조림을 진행함
 - 여러 섹터와 협력구조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멸종위기종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멸종위기의 심각성을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함
- 결과적으로 ‘공존숲’, ‘멸종위기종 생태복원숲’은 탄소중립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함

[표 38] IMP 분석 개요 - 생물다양성 및 탄소중립의 숲

구분	내용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 교토의정서 발효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 중립에 기여하고자 함 •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고자 함
조직의 솔루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멸종위기종을 위한 서식지 마련 및 탄소중립을 위한 조림 • 여러 섹터와 협력구조 마련 • 멸종위기종 관련 프로그램 운영
Outcome	탄소중립 및 생물다양성 증진

○ IMP 분석 내용

- ‘공존숲’과 ‘멸종위기종 생태복원숲’은 김천시, 대구시, 용인시, 연천군을 대상으로 함
- 2020년 우리나라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판 그린뉴딜을 발표함
 - 이에 따라 80여개의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함
- 탄소중립 및 생물다양성 증진 문제가 세계적으로 핵심적인 환경문제로 대두됨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2050년 환경전망(2011)’에 따르면 지난 40년간 생물종풍부도는 11% 감소하였고, 2050년에 약 10%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생물종멸종은 인간 활동이 없을 때보다 약 1,000배 빠르게 진행된다고 함
- 이러한 국내외적인 흐름에 따라 ‘공존숲’ 조성 사업과 ‘멸종위기종 생태복원숲’ 조성 사업이 진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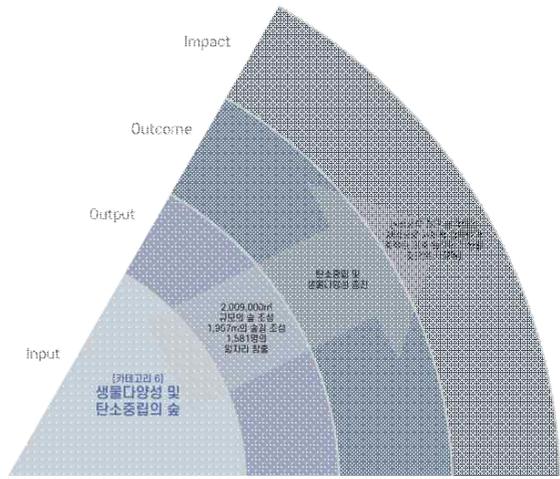
- 이 사업은 5,619,000m² 규모의 숲을 조성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사회적 성과를 이끌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에 대한 민관협력을 활성화함
- 이는 SDGs 중 ‘11.4.1 세계문화유산에 포함하는 국가문화, 자연유산의 보전, 보호 및 관리에 배정된 국가(또는 지방) 예산의 비율’, ‘11.7.1 도시에서 공공목적의 용도를 위해 개방된 시가지 지역이 차지하는 평균비율 (연령, 성 및 장애인별)’, ‘15.2.1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에서의 진전’, ‘15.6.1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의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 행정적, 그리고 정책적인 기반을 채택한 국가의 수’, ‘17 파트너십’에 관한 목표를 달성함

[표 39] IMP 데이터 카테고리별 분석 - 생물다양성 및 탄소중립의 숲

차원	데이터 카테고리	
What	사회적 성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민관협력 활성화
	요구되는 수준	-
	해결방안의 중요성	2020년 우리나라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판 그린뉴딜을 발표했으며, 80여개의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함. 이후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 비상결의안'을 의결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2050년 환경전망(2011)'에 따르면 지난 40년간 생물종풍부도는 11% 감소하였고, 2050년에 약 10%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생물종멸종은 인간 활동이 없을 때보다 약 1,000배 빠르게 진행된다고 함
	SDG목표/글로벌목표	11. 지속가능도시 (11.4.1 / 11.7.1) 15. 육상생태계 (15.1.1, 15.2.1) 17. 파트너십
Who	대상	국토, 지구(자연)
	지역	김천, 대구, 용인, 연천
	기존상태	-
How much	대상의 특성	-
	규모	5,619,000m ²
	심도	-
Contribution	지속기간	비가역적
	심도 관련 공헌도	-
Risk	지속기간 관련 공헌도	-
	리스크 유형	-
	리스크 수준	-

○ Imp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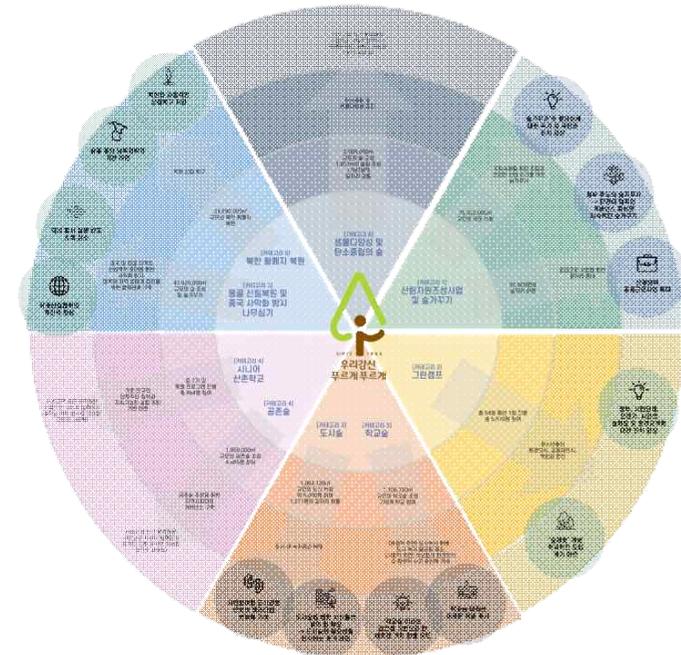
- 최근 본격화된 사업으로 사회적 임팩트가 측정된 이후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그림 28] KKG 사회적 임팩트 창출 모식도
-생물다양성 및 탄소중립의 숲
(출처: 연구진 작성)

제2절 소결

- KKG는 단편적인 사업 진행에서 나아가 사회적 이슈와 산업을 융합함으로써 환경적 가치를 증진함과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



[그림 29] KKG 사회적 임팩트 창출 모식도

- KKG는 집합적 임팩트 생태계 구축을 촉진하는 '중추지원조직'의 역할을 수행하며, 집합적 임팩트 성공을 위한 조건 충족을 이끌어냄
 - 환경적, 사회적 이슈를 조사 및 연구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와 사회변화를 위해 합의된 비전, 공동의 목표를 가짐

- 데이터 수집 및 성과 측정의 지속적인 수행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와 **성과 측정 시스템을 공유함**
- KKG를 통해 서로 다른 전문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들이 교류하고 실행계획을 촉진하며 **상호 활동을 강화함**
- 국가기관, 지자체, 시민단체 등의 이해관계자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상호 간의 신뢰를 구축하였으며, 목표 및 동기부여를 확인함

제4장

KKG 향후 발전방안

제1절 KKG 향후 발전 방향 및 비전

제2절 KKG 향후 발전전략

제3장 KKG 향후 발전방안

제1절 KKG 향후 발전 방향 및 비전

- 유한킴벌리는 환경적 가치를 증진함과 동시에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KKG를 추진함. 이를 통해 국가 차원으로 사회적 임팩트를 확산해 온 바 있음
 - 이를 통해 단편적인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실행에서 나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조하는 거버넌스 형태의 사업방식을 적극적으로 적용함
- 특히 KKG는 사회적 맥락 및 국가의 산림 상태에 따라 변화하는 산림경영 패러다임과 상호작용하며 캠페인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알맞은 사업을 진행해 옴. 향후에도 국내 산림경영 패러다임의 긍정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비전을 설정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사회적 이슈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산림기본계획 변화를 통해 산림경영 패러다임 변화를 살펴보면, ‘산지복구기’, ‘치산녹화기’, ‘산지 자원화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기’, ‘산림자원 순환경제 도입기’, ‘산림자원 순환경제 확대기’로 구분됨(이종열, 20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장제원, 2015; 산림청, 2018). 우리나라는 산림을 통해 단순히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회·경제 영역과의 융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음

[표 40] 산림기본계획의 변천

산림경영 패러다임 변화	국내 산림정책 변화			
	산림기본계획	기간	목표	주요 내용
보속수확 기반구축	산지 복구기	대단지 치산개발계획 1970~2004 (중단)	보속생산	14개 대단지 종합임업개발계획 수립
	치산 녹화기	제1차 치산녹화 10년계획 1973~1982	전 국토 속성녹화	국민참여에 의한 조림, 연료림 조성, 입산통제, 화전정리사업 완수

산림경영 패러다임 변화	국내 산림정책 변화			
	산림기본계획	기간	목표	주요 내용
		제2차 치산녹화 10년계획 1979~1988	산지 자원화	대단위 경제림단지 조성, 미임목지, 요사방지 일소, 산지 이용체계 확립
다목적 산림경영	산지 자원화기	산지자원화계획 (제3차 산림기본계획) 1988~1997	산지효용 극대화 (산지소득 개발 및 공익기능 증진)	임업진흥촉진지역 설정, 휴양림 조성, 공익기능 강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기	제4차 산림기본계획 1998~2007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	산지관리체계의 확립, 경영임정의 촉진과 임업인 육성, 산림자원의 경제림화 촉진, 임산업 경쟁력 강화, 산림생물자원의 보전·관리 강화, 산림재해 방지와 도시림 확충, 산림휴양 문화의 진흥과 산촌종합개발
		제4차 산림기본계획 (수정) 2003~2007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녹색국가 구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체계 확립, 경제적·생태적·사회적 기능 제고
	산림자원 순환경제 도입기	제5차 산림기본계획 2008~2017	다기능 산림자원의 육성과 통합관리 및 자원순환경 산림산업 육성	다기능 산림자원의 육성과 통합관리, 자원순환경 산림산업 육성, 산림의 보전·관리 녹색공간과 서비스 확충
		제5차 산림기본계획 (수정) 2013~2017	온 국민이 숲에서 행복을 누리는 녹색복지 국가	지속가능한 기능별 산림 관리체계 확립, 기후변화 대응, 산림탄소관리체계 구축, 시장기능 활성화 기반 구축, 산림생태계 통합적 보전·이용 체계 구축, 산지·산림 재해 관리,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체계 구축
산림자원 순환경제 확대기	제6차 산림기본계획 2018~2037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 모두가 누리는 복지산림, 사람과 자연의 생태산림	산림자원 및 산지관리체계 고도화, 산림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임업인 소득 안정 및 산촌활성화, 일상수, 산림복지체계 정착,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 및 증진,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으로 국민안전 실현, 국제산림협력 주도 및 한반도 산림녹화 완성	

(출처: 주요진 외, 2009; 장제원, 2015; 김주연, 2023)

- KKG는 ‘숲가꾸기’, ‘산림문화’, ‘남북산림협력’, ‘도시숲’ 등의 개념 정착 및 활성화에 앞장서 왔음. 당대의 산림경영 패러다임에 알맞은 캠페인 사업을 제시할 뿐 아니라 전환이 요구되는 시기에는 이를 이끌



[그림 32] KKG 향후 발전 방향 및 비전(안)
(출처: 연구진 작성)

제2절 KKG 향후 발전전략

- ‘로컬 거버넌스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KKG의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통합 플랫폼 ‘School of KKG(스쿨 오브 우리장산 푸르게 푸르게, 가칭)’ 운영을 발전 전략으로 제시하고자 함

1. ‘School for Field Study(SFS)’ 사례

- SFS 배경 및 개요
 - 1980년대 환경이 핵심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지만, 환경 및 과학 관련 커리큘럼은 미국의 일부 최고대학에서만 진행되고 있었음. 또한, 이러한 중요한 환경문제는 과학자들에게 국한되어 주도되고 있었음
 - ‘모든 분야의 개인이 지구와 자연을 보전하는 것에 관한 교육과 노력을 기울이자는 비전’을 가지고 SFS가 설립됨
 - ‘스쿨 오브 필드스터디(SFS)’는 학생들이 학교를 벗어나 전세계를 바탕으로 한 현장에서 학습 및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프로그램
 - 학생들은 10개의 국가에 위치한 자연 현장을 대상으로 생태계, 자원관리, 정책, 문화, 윤리, 정의 등을 학습함. 이 과정에서 현장연구원, 강사, 멘토, 스태프가 학생들의 학습 및 연구를 도와주며, 각 프로그램별 안전 및 리스크 관리 평가 및 계획이 수립되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을 보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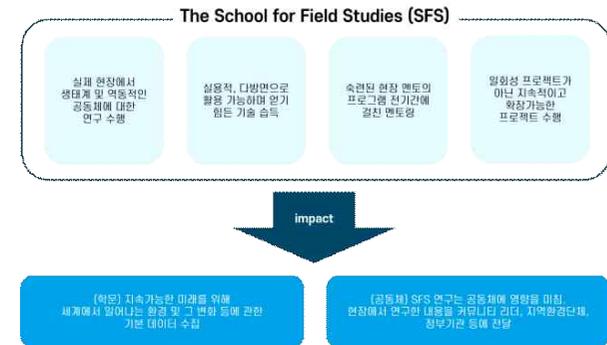
[표 41] SFS에서 진행중인 프로그램 (2023년 8월 기준)

국가	지역	주요 주제	핵심 기술
호주	퀸즐랜드 북부 열대지방의 열기버라 (열대우림 생태계)	열대우림 생태 및 보전, 기후변화, 서식지 생태복원, 멸종위기종 보전, 생태관광, 열대우림에서의 개발 및 정착, 열대우림 파편화 및 회복, 산림 전이대, 동물행동학	GIS 사용 및 응용, 종 식별 및 개체군 모니터링, 산림 조사 방법, 시민과학 초안, 연구 설계 및 구현, 정량적 및 정성적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연구 발표
부탄	파로불리 (산림 생태계 및 공동체)	육상 및 담수 생물 다양성 평가, GIS, 산림 및 숲 생태 및 보전, 기후 변화, 산림 직업 및 수문학, 산림 및 천연 자원 관리, 환경 거버넌스, 보존에 대한 종교 철학의 영향, 도시 이주 및 개발, 농업 및 식량 안보	GIS 및 도표화, 종 식별 및 분포 도표화, 산림 및 생물 다양성 조사, 카메라 트래핑 및 안개 투망, 정량적 및 정성적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포도 지역 평가

국가	지역	주요 주제	핵심 기술
캄보디아	시엠틸립 톤레삼 호수 및 메콩 유역	코끼리 생태계, 기후 변화 영향, 전통 생태 지식, 생물 다양성 보존, 환경 정의, 환경 인류학	기후 변화 영향, 코끼리 생태계 및 보존, 전통 생태 및 생태 지식, 지역 사회 보존 전략, 토착민의 권리 및 도전, 보호 지역 및 위협받는 생태계, 환경 윤리 및 정의, 천연 자원 거버넌스
칠레	판타고니아 푸에르토 나탈레스	기후 변화 영향 및 복원력, 빙하 및 담수 역학, 지질 및 화산 활동, 행권 행동학, 멸종 위기 종 보호, 해안 및 고산 생태계, 보존 전략 및 실천, 국립 공원 방문 및 보호 지역 관리	지상 및 담수 생물 다양성 평가, GIS, 수질 및 평가, 생물 다양성 조사 기법, 학명 및 개체군 모니터링, 천연 자원 가치 평가, 경관 및 토양 분석, 연구 설계 및 구현, 정량적 및 정성적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과학적 글쓰기 및 커뮤니케이션, 기본적인 스페인어 능력
코스타리카	아테네 센트랄밸리 (해안 우림 및 열대 건조림)	기후 변화가 열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농업 및 보존, 환경 서비스 및 생물 다양성 보존, 도시 및 농업 확장 및 물 관리, 식량 안보, 척추동물 생태, 지속 가능한 생태 관광, 생태 복원력, 연구 설계 및 구현, 정량적 및 정성적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과학적 글쓰기 및 커뮤니케이션, 기본 스페인어 능력	GIS 사용 및 응용, 종 식별, 서식지 및 생물 다양성 평가, 척추동물 생태학, 관광 영향 평가 방법, 스페인어 기초 기술, 연구 설계 및 구현, 정량적 및 정성적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연구 발표
케냐	키마나 지구대 (사바나 생태계)	멸종위기종, 야생동물 생태 및 관리, 야생동물과 인간, 지역사회와의 자원경쟁, 지역사회 보존 및 생태관광, 지역 야생동물 보호구역, 국립공원 관리, 야생동물 분산 및 보호구역 밖 이동	동물 행동 관찰, 환경 영향 평가, 종 식별, 야생 동물 개체 수 조사 기술, 천연 자원 관리 계획, 정량적 및 정성적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관광 영향 평가 방법 및 기본 스와힐리어 능력
파나마	보카스델토 레도 (뎡그로브 숲, 숲생태계, 농업 및 어업 공동체, 관광지역)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건강성 평가, 열대우림 및 해양생태, 토착관광 및 지속가능성, 관광이 생태계 및 인구에 미치는 영향, 해양보호구역	서식지 및 생물 다양성 평가, 삼각법, 사각법을 이용한 수중 측량, 관광 SWOT 분석, 기본적인 스페인어 능력, 인터뷰 방법, 정량적 및 정성적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페루	아마존 열대우림 생태계	기후 변화와 보존, 경관 생태학과 서식지 파편화, 생물 다양성 평가, 산림 건강과 회복, 토착 지식과 역사, 생태계 서비스와 탄소 시장, 아마존 생물 지리학 발전의 영향, 정치 생태학	종 식별 및 개체군 모니터링, 생물 다양성 및 서식지 조사, 연구 계획, 인터뷰 및 도표화 기술, 보존 전략 평가, 기본적인 스페인어 기본 능력, 연구 설계 및 구현, 정량적 및 정성적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연구 프레젠테이션
탄자니아	타랑기레-만아라 생태계 (세렝게티 국립공원)	야생동물 보호, 기후 변화 영향, 아프리카 대형 포유류 행동 및 생태, 조류학, 인간-야생동물 갈등, 서식지 평가, 지역사회 기반 보존, 파충류 생태 및 보존	GIS 사용 및 응용, 서식지 및 생물 다양성 평가, 천연 자원 가치 평가, 종 식별 및 야생 동물 개체 수 조사 기술, 동물 행동 관찰 기술, 우선 원칙 측정, 조류 종 식별, 기본 스와힐리어 기술, 연구 설계 및 구현, 정량적 및 정성적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연구 발표
터크스 케이커스	남케이커스 섬 및 해양 생태계	해양생태 및 보존, 기후변화 및 해양산성화, 지속가능한 관광 및 수산분야, 해양자원관리, 전통술, 산호건강 및 복원력, 해양보호지역 관리	산호 건강 평가, 해양 종 식별, 삼각법 및 사각법, 비디오 및 사진 추적, 해양 조사 기술, 서식지 및 생물 다양성 평가, 생태계 서비스 가치 평가, 연구 설계 및 구현, 정량적 및 정성적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연구 발표, PADI 오픈 워터 다이버 인증

○ SFS의 영향력

- 학생들은 SFS를 통해 실용기술, 공동체 의식을 증진시키며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음.
- SFS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SFS를 ‘자신의 목표에 충족되는 프로그램’,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주는 프로그램’, ‘실용연구, 분석, 소통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적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함
- SFS는 직접적인 참가자인 학생을 포함해 연구원, 지역공동체 등 이해관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줌
- 환경적 측면에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필요한 환경 및 환경변화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음
- 사회적 측면에서는 지역공동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음. 지역주민은 이야기, 관찰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환경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데이터는 연구를 통해 다시 지역 리더, 지역 시민단체, 정부기관 등에 전달되어 지속가능한 정책 결정에 중요한 근거로 사용됨



[그림 33] SFS 프로그램으로 인한 환경적, 사회적 임팩트

(출처: SFS홈페이지,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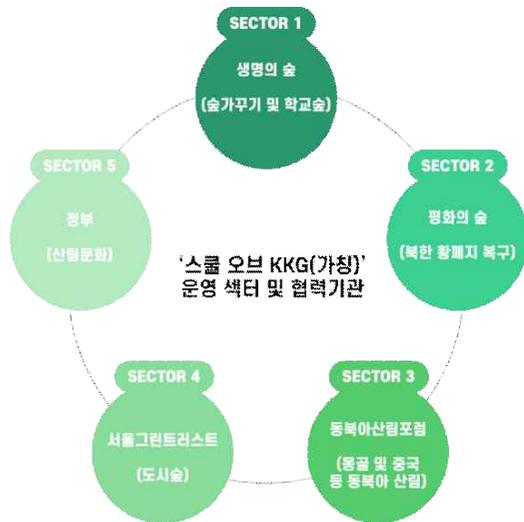
- SFS 프로그램은 환경문제를 모든 지구 구성원들이 학습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비전을 반영하였으며, 공간적으로 한 대상지에 국

한되지 않고 전세계를 대상으로 각 지역의 생태계와 공존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환경, 지역생태계를 고려한 SFS는 KKG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성 과도 일치함

2. '스쿨 오브 KKG(가칭)' 역할 및 추진체계

- '스쿨 오브 KKG(가칭)'는 KKG를 통해 조성된 각 대상지 및 거버넌스를 종합 및 확장하는 플랫폼으로, 다음과 같은 운영체계를 갖출 수 있음
 - '스쿨 오브 KKG(가칭)'는 앞서 살펴본 SFS의 사례와 같이 주제에 따라 다양한 섹터로 운영될 수 있음
 - 각 섹터는 기존에 유한킴벌리가 KKG를 통해 협력관계를 마련해 온 시민사회와 정부가 핵심 이해관계자로서 운영을 주도하는 방향이 고려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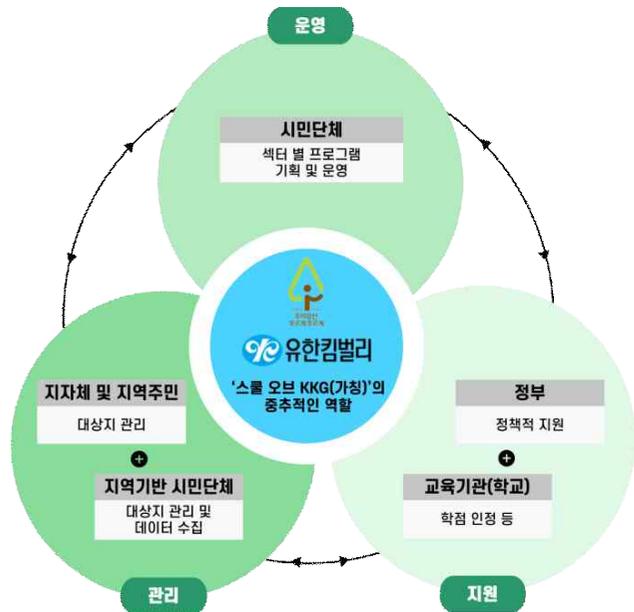


[그림 34] '스쿨 오브 KKG(가칭)' 운영체계(안)
(출처: 연구진 작성)

- 유한킴벌리는 본 플랫폼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기존 사업 대상지를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함. 특히 지역 현장에서 각 섹터의 담당 기관이 중심이 되어, 정부·지자체·대학·지역 내 시민단체·학생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의 장을 마련하는 추진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함
 -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본 플랫폼의 추진체계는 '운영', '관리', '지원'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될 수 있음. 유한킴벌리는 3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고 지원함

[표 42] '스쿨 오브 KKG' 추진체계

구분	핵심 이해관계자	주요 내용(역할)
중추조직	유한킴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랫폼 제공을 통해 '운영', '관리', '지원'의 3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지원함 • KKG를 통해 기존에 구축된 거버넌스를 통해 '스쿨 오브 KKG(가칭)'에 참여하는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함 • 공존숲 등 KKG를 통해 형성된 대상지를 지원함 • 40년 간 KKG 캠페인을 운영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활용하고 발전시킴
운영	시민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섹터를 담당하는 시민단체는 주제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함.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 대상지 유지 및 관리와 더불어 네트워크 확장이 가능케 함 • 특히 현장에서 학습 및 연구를 하고 싶은 학생을 모집하여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각 섹터에서 한 학기 활동함 • 학생들은 각 대상지에서 연구한 자료 및 결과를 지역 공동체에 공유함. 이 자료는 지역의 정책 마련의 근거 등 지역의 환경적, 사회적 발전을 위해 사용됨
관리	지자체, 지역주민, 지역 기반 시민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쿨 오브 KKG(가칭)'가 진행되지 않을 때, 대상지는 지자체 및 지역주민, 지역 기반 시민단체가 지속가능하도록 관리함 • 이 과정에서 지역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음 • 지속적인 숲 관리를 통해 확보된 데이터는 '스쿨 오브 KKG(가칭)' 진행 시 유의미한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음
지원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쿨 오브 KKG(가칭)'의 활발한 운영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대학은 학생들이 현장 학습 및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학점을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함



[그림 35] '스쿨 오브 KKG(가칭)' 추진체계

3. 기대효과

- '스쿨 오브 KKG(가칭)'은 지난 KKG로 형성된 대상지 및 거버넌스를 종합 및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를 통해 지속적인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음
- KKG가 축적한 성과의 유지 및 확장을 기대할 수 있으며, 기존에 구축한 생태계의 중추적인 조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무엇보다 개별사업 위주로 진행되었던 기존의 구조에서 종합적 운영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나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관계를 견고히 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생태계에 참여하는 주요한 이해관계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하고 이들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문헌

[학술논문]

김재현 (Jae Hyun Kim),장주연 (Chu Youn Chang),태유리 (Yoo Lee Tae),and 김해창 (Hae Chang Kim). "국내 500대 기업의 산림분야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의 유형과 추진방식." 한국산림과학회지 99.6 (2010): 816-826.

나석권,and 송기광. "임팩트의 측정/평가를 위한 새로운 시도 - IVM 방법론." 環境論叢 68.- (2021): 6-22.

유미연. "국제보호지역의 지정 및 관리를 통한 접경지역의 역량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국내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21. 서울

유병일. "세계 산림자원 변화와 한국의 국제산림협력 방향." 농촌경제 28.3 (2005): 101-119.

이용탁 (Yoeng-taak Lee). "임팩트 투자에 있어서 임팩트 측정에 관한 탐색적 고찰." 기업경영리뷰 11.2 (2020): 97-119.

이정기(Jeongki Lee),and 이재혁(Jay Hyuk Rhee). "'지속가능경영' 연구의 현황 및 발전방향: ESG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전략경영연구 23.2 (2020): 65-92.

Kania & Kramer (2011) Collective Impact

[단행본, 연구보고서]

박영규 외(2018) 사회적 가치와 사회혁신

산림일자리발전소(2020) 2020 산림일자리발전소 성과보고서

산림청(2010)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을 통한 산림조성 및 관리 활성화 방안

서울연구원(2021) 도시공원 운영관리의 민간참여 및 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신강균(2008)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SR) 10계명

생명의숲(2015) 아름다운숲 전국대회 수상자 모니터링 및 대회 발전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양아람 외(2020) 위성영상을 이용한 북한의 산림 변화 해석

유한킴벌리(2000)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한 새로운 주체형성에 관한 연구

유한킴벌리(2006~2022) 유한킴벌리 지속가능보고서 '사람이 희망이다'

임업협동조합중앙회(1998) IMF로 인한 실업자의 산림사업 흡수방안 연구

장용석 외(2022) 사회적가치의 시대, 집합적 임팩트가 답이다

한국갤럽(1997) 산림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

[기사]

서울시, 푸른 환경도시, 예산확보와 시민참여가 관건, 2003.06.23., 매일경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0300297?sid=102>

서울시민 67% "녹지 늘린다면 비용낼것", 2004.03.19., 문화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0063612?sid=101>

Over \$420M North American Forest Fund from Japanese Investors Kicks Off.
2023.7.10., Carbon Credits.
<https://carboncredits.com/over-420m-forest-fund-from-japanese-investors-kicks-off-in-north-america/>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

더블에이 홈페이지.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951>

산림청 홈페이지. www.forest.go.kr

소셜벤처스퀘어 홈페이지. <https://sv.kibo.or.kr/Info/Imp.do>

유엔 글로벌 콤팩트 홈페이지. <http://unglobalcompact.kr/>

유한킴벌리 홈페이지. www.yuhan-kimberly.co.kr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www.kofpi.or.kr

IPM 홈페이지. <https://impactmanagementplatform.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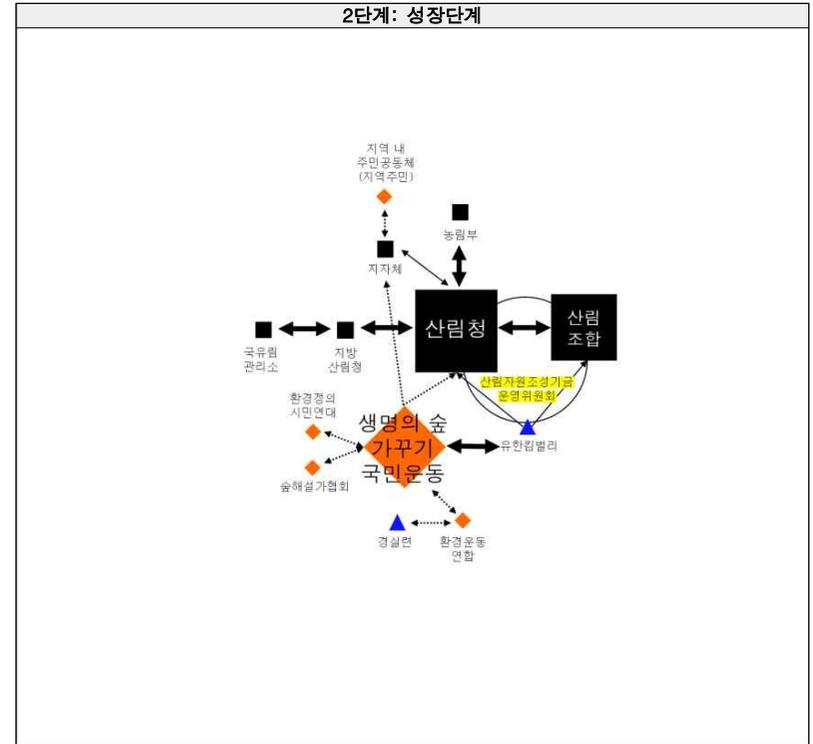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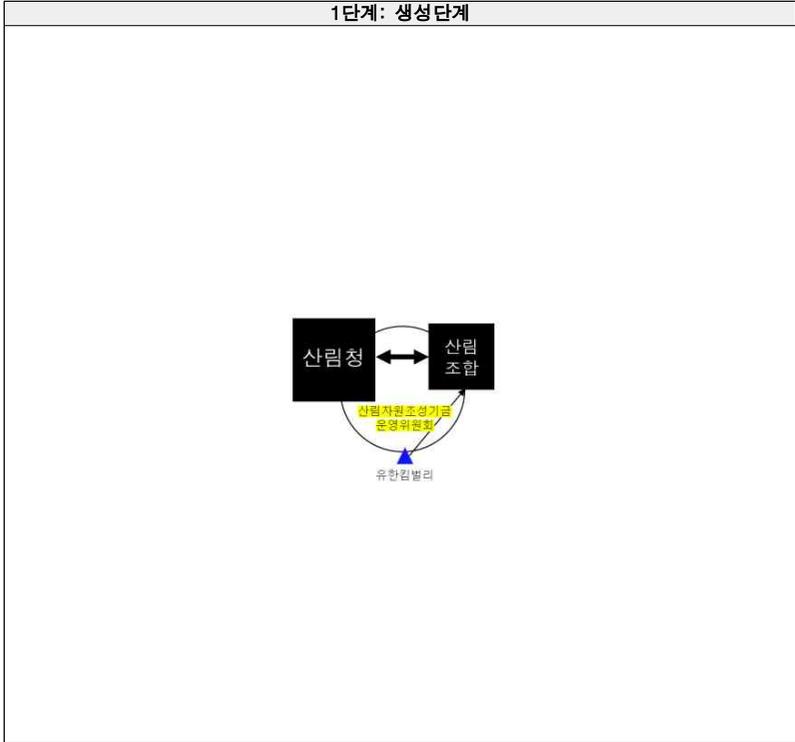
Impactology 홈페이지. <https://impactology.org/imp/>

SFS 홈페이지. <https://fieldstudies.org/why-sfs/the-sfs-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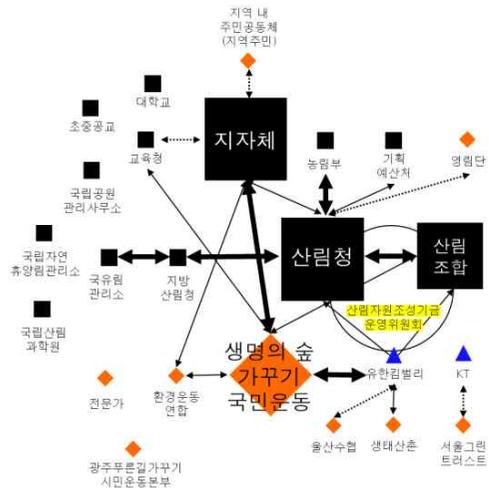
부록

[부록 1] KKG 집합적 임팩트 생태계 발전단계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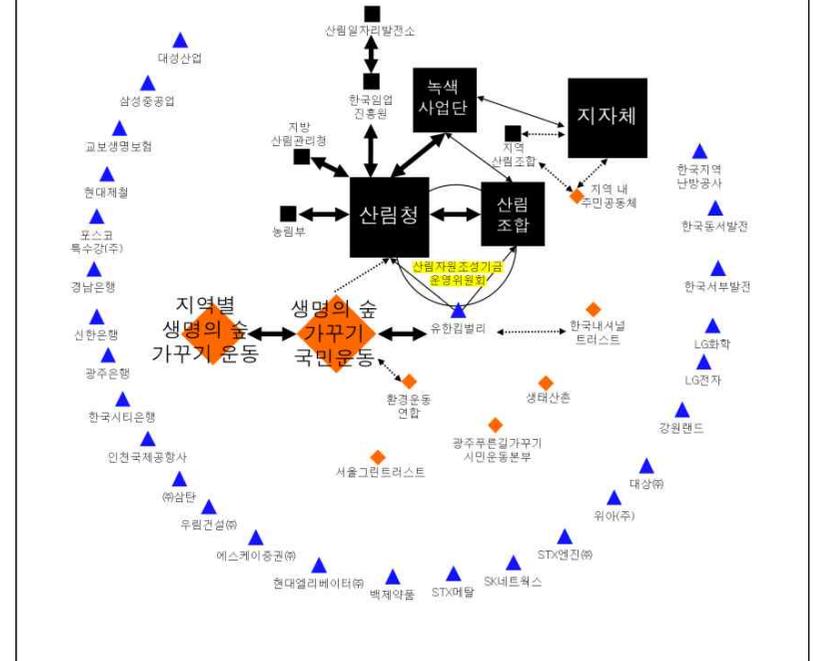
1. [카테고리 1] 거버넌스형 산림자원 조성 및 숲가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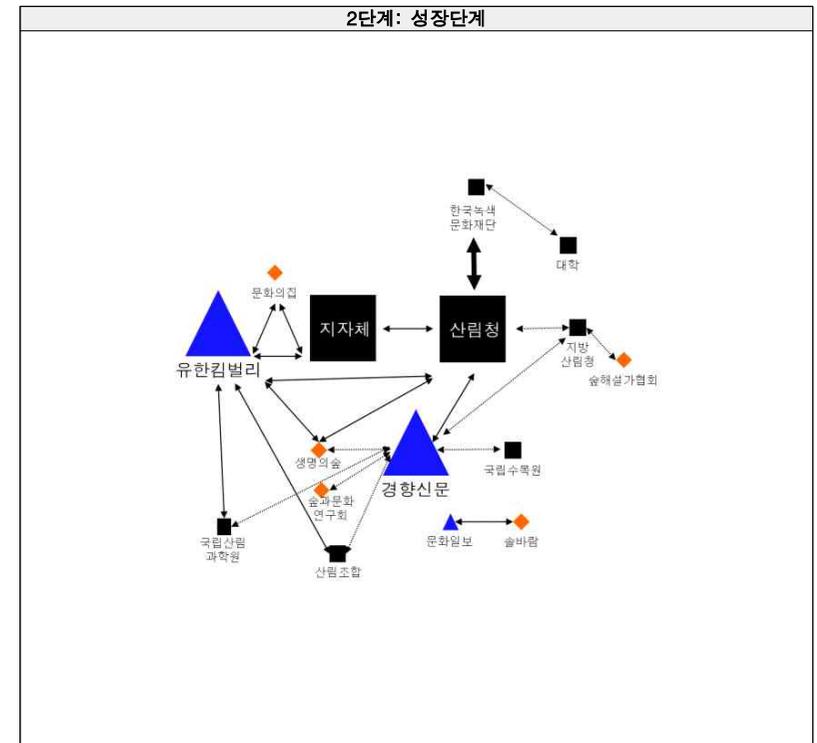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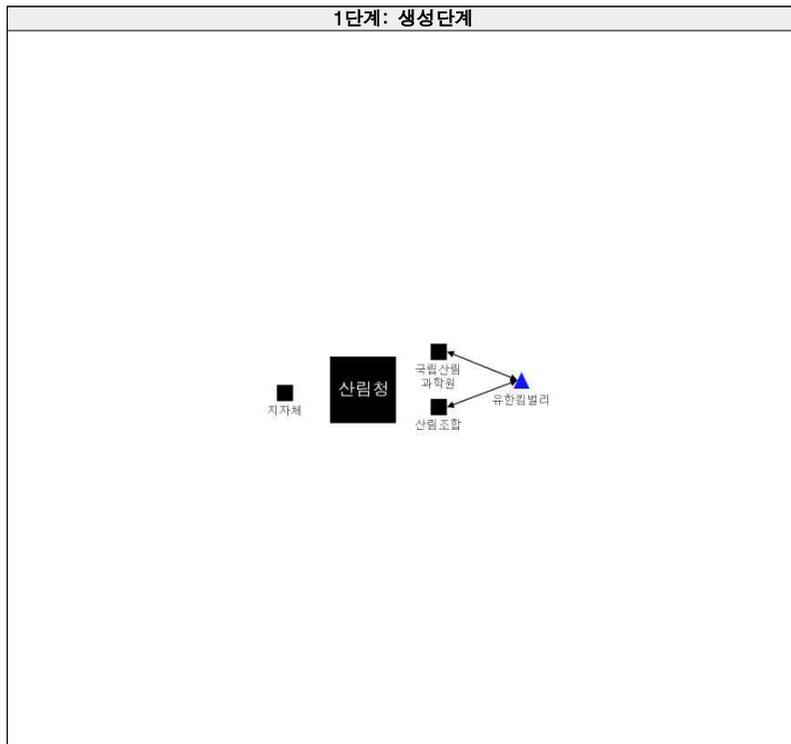
3단계: 확장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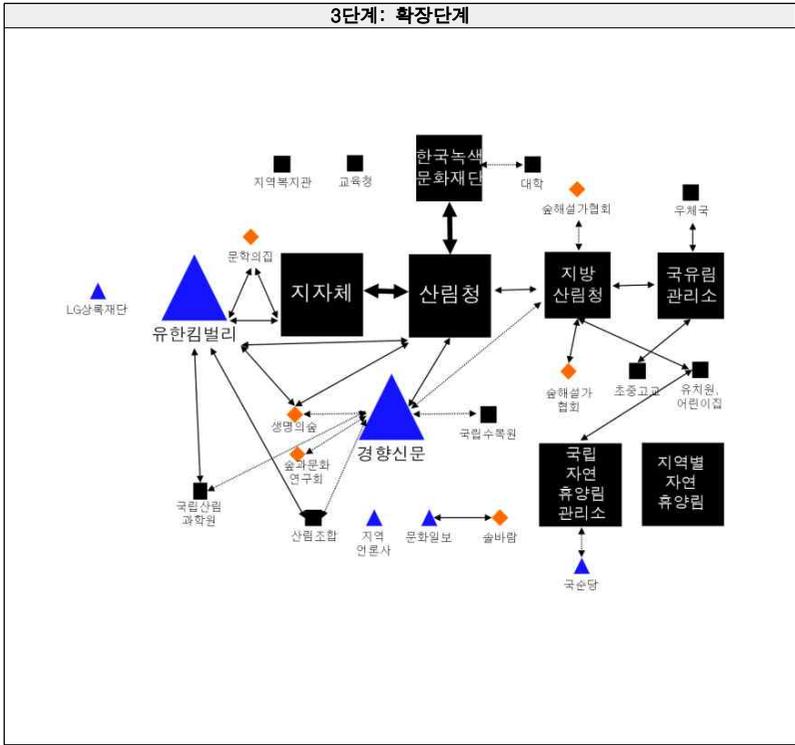
4단계: 안정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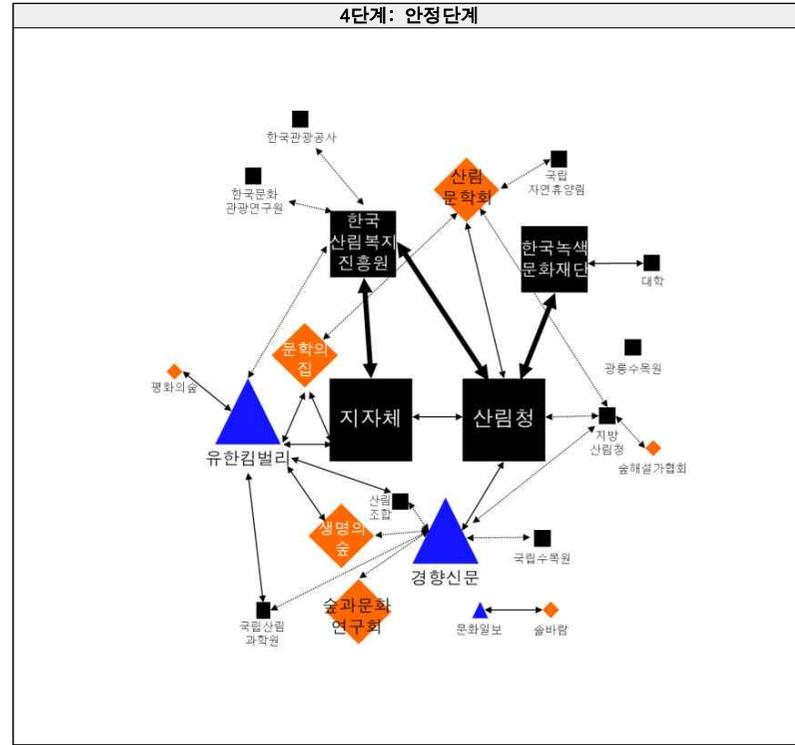
2. [카테고리 2] 산림문화(교육·체험·문화·예술)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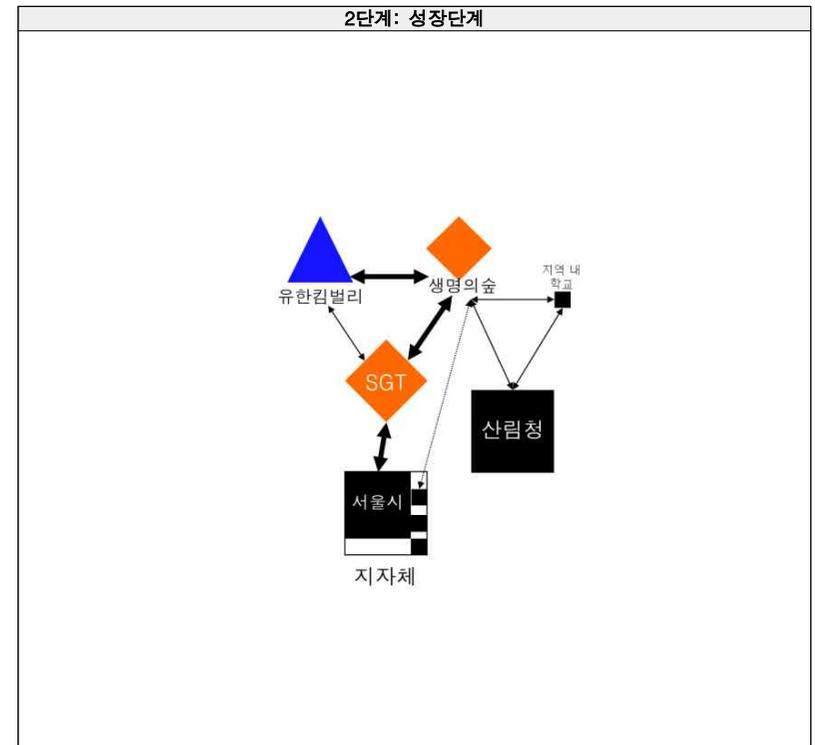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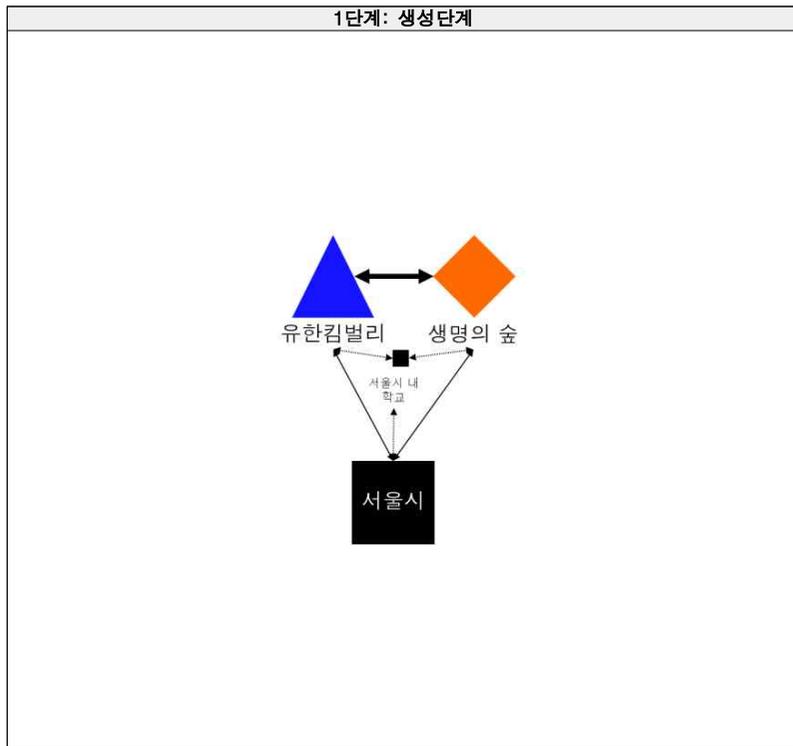
3단계: 확장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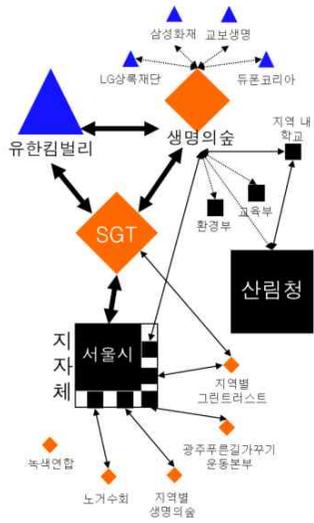
4단계: 안정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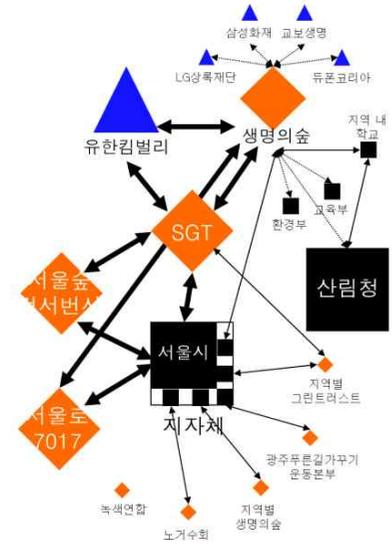
3. [카테고리 3] 도시숲 조성 및 시민참여형 운영관리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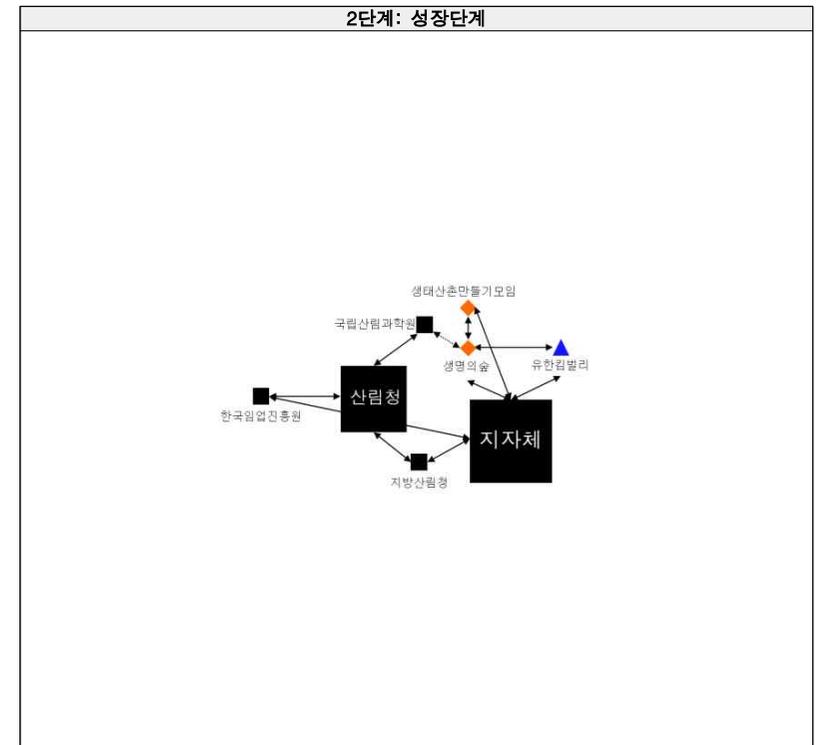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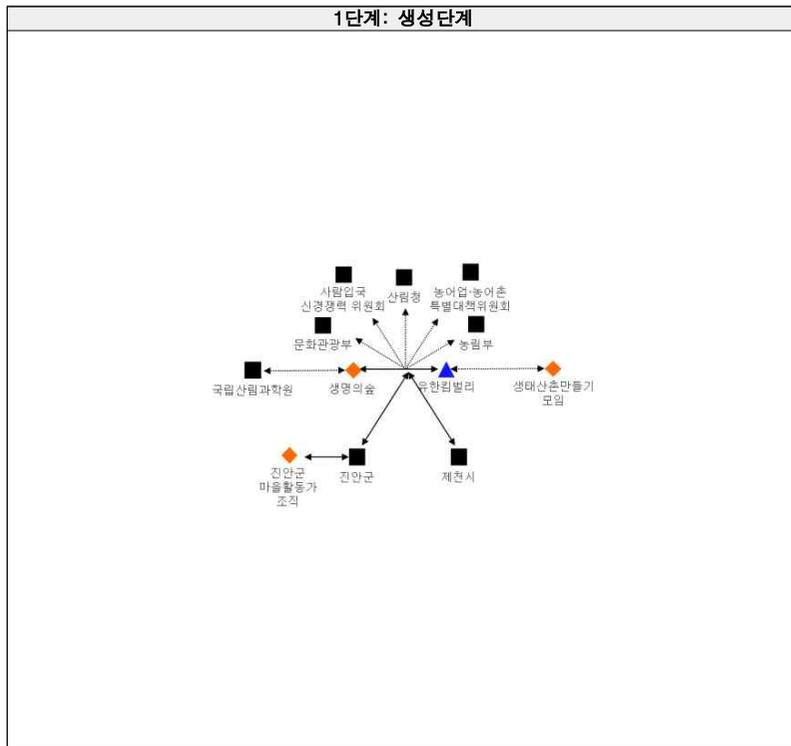
3단계: 확장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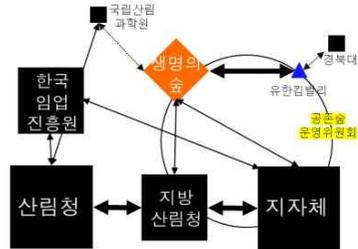
4단계: 안정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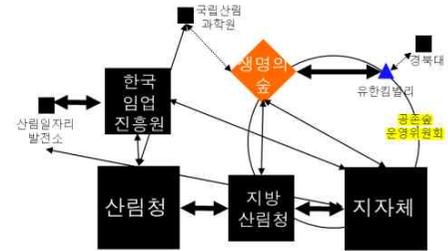
4. [카테고리 4]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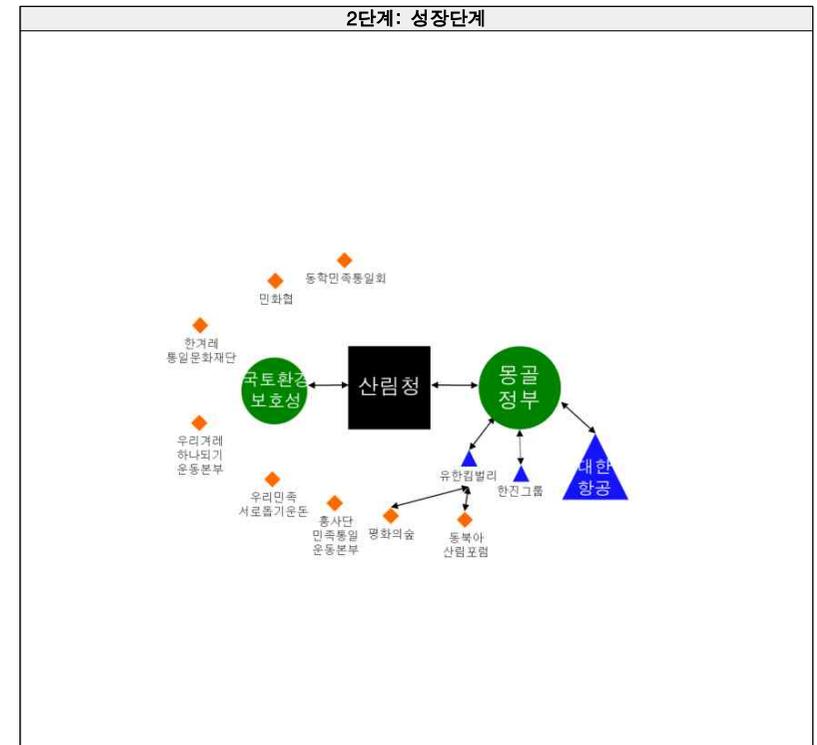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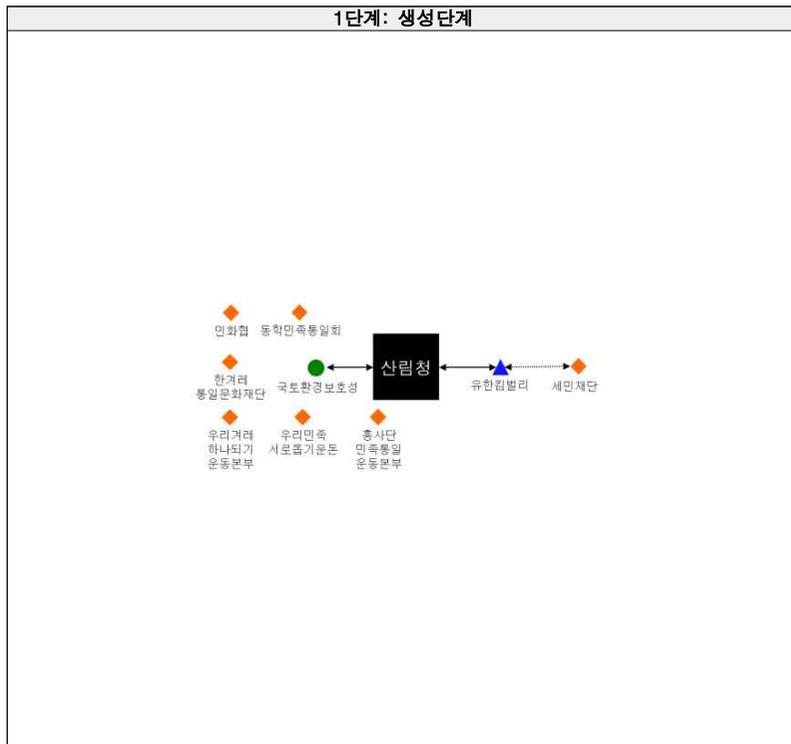
3단계: 확장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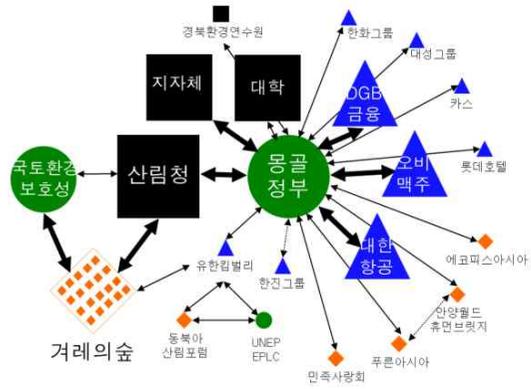
4단계: 안정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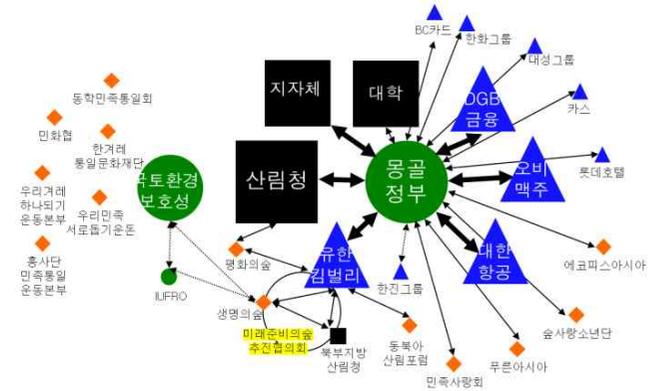
5. [카테고리 5] 국외 숲만들기



3단계: 확장단계



4단계: 안정단계



[부록 2] 카테고리별 키워드 검색 결과시대별 변화 추이

1. [카테고리 1] 거버넌스형 산림자원 조성 및 숲가꾸기



[그림 56] 카테고리 1 키워드의 언론 노출 빈도
(출처: 연구진 작성)

2. [카테고리 2] 산림문화(교육, 체험, 문학, 예술) 확산



[그림 57] 카테고리 2 키워드의 언론 노출 빈도
(출처: 연구진 작성)

3. [카테고리 3] 도시숲 조성 및 시민참여형 운영관리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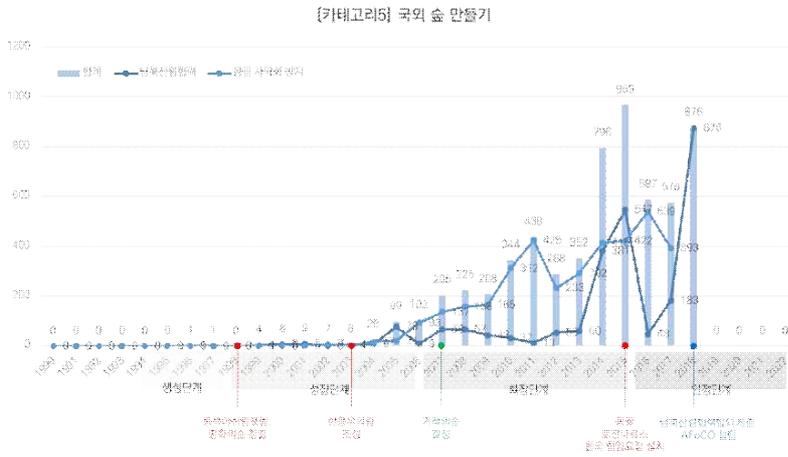
[그림 58] 카테고리 3 키워드의 언론 노출 빈도
(출처: 연구진 작성)

4. [카테고리 4]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



[그림 59] 카테고리 4 키워드의 언론 노출 빈도
(출처: 연구진 작성)

5. [카테고리 5] 국외 숲 만들기



[그림 60] 카테고리 4 키워드의 언론 노출 빈도
(출처: 연구진 작성)